금수강산

6

주체106(2017)

루계 제334호 월간

 ISSN 1727-9062

세상에 부럼없어라

2. 우리 힘 꺾을자 그 어데 있으랴
풍랑도 무섭지 않네
백두의 넋을 이어 빛나는
내 조국 두렴 몰라라
(후렴)

3. 동무들 다같이 노래를 부르자
손풍금소리 맞추어
천리마 나래 펴는 내 조국
백화가 만발하였네
(후렴)

차 례

새로 건설된 평양초등학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원아들과 함께 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6(2017)년 2월

세상에 부럼없어라

지난 세기 20년대 초엽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낱말을 쓴 이름난 아동문학작가였던 방정환(잡지 〈어린이〉 발간자)은 민족이 후대들을 사랑해줄것을 원하는 마음을 이렇게 글줄에 담았다.

《어린이는 어른들보다 더 높게 대접하시오. 어른은 뿌리라 하면 어린이는 싹입니다. …뿌리가 싹을 위해 키워주어야 그 나무(그 집 운수)는 뻗어나갈것입니다. …》

조국이라는 대지에 솟아오르는 애어린 싹과 같은 아이들은 언제나 따뜻이 보살피고 아끼는 마음에 떠받들려야만 무럭무럭 자라나 아지를 펴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을수 있다.

조국에서는 아이들이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우고 제일 좋은것은 아이들에게 먼저 돌려지고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절대로 거짓이 비끼지 않는다.

그 무엇으로써도 지어낼수 없고 흉내낼수도 없는 소박하고 진실한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가정도 나라도 밝아지는 우리 조국이다.

되새길수록 가슴이 뜨거워진다.

몇해전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전국의 수많은 소년단원들이 비행기와 기차, 뻐스를 타고 평양에 왔었다.

머나먼 북변의 두메산골아이들도 분계연선지역의 아이들도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는 평양으로 붉은 소년단넥타이를 휘날리며 한달음에 달려왔다.

소년단대표들은 처음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환하신 영상을 모신 대표증을 받아안았으며 릉라인민유원지를 비롯한 평양의 곳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주체101(2012)년 6월 6일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먼길을 한달음에 달려온 우리의 장한 소년단대표들과 모범소년단원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여 정말 기쁘고 반갑다고, 여기에 참가한 소년단원들의 대견한 모습과 정다운 얼굴들을 보니 동무들을 평양으로 뜨겁게 바래워준 소년단원동무들과 선생님들, 동무들의 부모형제들을 다 만나보는것만 같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에 있어서 사랑하는 소년단원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며 희망과 미래의 전부입니다.》

그이의 연설을 들으며 대회참가자들은 물론이고 온 나라 소년단원들과 교원, 학부형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그이의 정다운 모습, 정깊은 음성은 한없이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그대로였다.

주체52(1963)년 9월 30일에 창립된 평양학생소년궁전에는 평양에서도 경치좋고 전망좋은 명당자리에 터전을 잡아주시고 설계와 건설을 지도하시여 웅장하고도 화려한 아이들의 궁전을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훌륭히 일떠세워주시였을뿐만아니라 북방의 산골학교를 비롯한 교육단위들을 찾고찾으시며 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적대세력의 끈질긴 고립압살책동, 전쟁책동으로 나라의 정세가 그처럼 엄혹했던 지난 세기 90년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높이 전선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였기에 아이들을 위한 콩우유차가 매일과 같이 달릴수 있었으며 아이들의 배움의 글소리, 노래소리 그리고 야영의 나팔소리가 높이 울릴수 있었던 것이다.

세상에서 처음으로 온 나라 아이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새 교복을 해입히는것을 공화국의 영원한 시책으로 정해주시고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며 한평생 아이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처럼 그런 위대한 어버이는 세상에 없다.

나라의 왕들인 조국의 아이들이 누리는 행복이란 어떤것인가.

손꼽히는 조국의 명당자리들에 꿈처럼, 무지개처럼 곱게 솟은 궁전들이며 야영소와 공원들… 그중에서도 제일 눈길을 끄는것은 친부모가 없는 아이들의 보금자리인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원아들의 궁전이다.

지금은 그 부름조차 없어진 고아, 사실 부모없는 애들만큼 부러운것이 많은 아이들은 없다지만 이 땅에선 어떠한가. 당(조선로동당)과 조국을 아버지, 어머니로 따르며 밝고 명랑하게 자라는 그 아이들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모든 일의 앞자리에 어린이들을 위한 일을 내세워주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전반적12년제무료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여주시였을뿐아니라 아이들에게 새 교복과 가방을 안겨주시기 위해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여러차례 찾으시여 공장로동계급이 교복천과 가방천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고 올해 첫 현지지도로 새로 건설된 평양가방공장을 찾으시여 우리가 만든 멋쟁이가방을 메고 학교로 오가며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홍그러워진다고 그토록 만족해하시였다.

개건된 평양아동백화점을 찾으시여서는 아이들의 심리에 맞는 상품들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주시고 옥류아동병원과 같은 훌륭한 의료봉사기지도 일떠세워주시였으며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삼지연학생소년궁전 등을 더 멋들어지게 개건하도록 해주시고 그곳들을 찾아주시여서는 아이들과 함께 계시며 공연도 보시고 사진도 찍어주시며 그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속에서 조국의 미래를 그려보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후대들에 대한 친부모의 심정을 그리도 깊이 체현하신분이시기에 지난해 4월 민들레학습장공장을 찾으신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책을 꿰매주는 어머니들의 심정을 안고 질좋은 학습장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민들레학습장공장에서 울려퍼지는 생산정상화의 동음소리는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나 같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세상에 부럼없어라》,

이 노래가 창작되여 불리워진 때로부터 어느덧 50여년세월이 흘러갔다.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는 조국의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뿐아니라 이 땅에 태를 묻은 천만군민이 심장으로 부르는 사회주의의 영원한 찬가이다.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받들어가는 길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고 《세상에 부럼없어라》와 같은 노래소리가 영원히 울릴수 있기에 조국의 천만군민은 지난해 6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공화국의 최고수위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세상에 부럼없어라》,

이것이 온 나라 천만자식들이 부르는 행복의 노래라면 그 행복을 가꾸어주는 어버이는 다름아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조국의 아이들과 인민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소리높이 부르고 또 부를것이다.

…
우리 힘 꺾을자 그 어데 있으랴
풍랑도 무섭지 않네
백두의 넋을 이어 빛나는
내 조국 두렴 몰라라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
세상에 부럼없어라

본사기자 리해

일 화

제일 좋은것은 아이들에게

친아버지의 사랑

주체103(2014)년 6월 1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평양애육원을 찾으시였다. 너무도 뜻밖에 찾아오신 그이께 인사도 변변히 올리지 못하는 교양원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6.1절을 맞는 원아들이 보고싶어왔다고 말씀하시였다.

원아들이 만경대유희장에도 가고 옥류관에서 국수도 먹었으며 일군들과 주변사람들의 관심속에 운동회도 하면서 명절을 보내고있다는 교양원들의 이야기를 만족하게 들어주시며 원수님께서는 애육원의 유희실에 들어서시였다.

원아들이 저저마다 그이의 품에 달려와 안기였다. 넘어지겠다고, 덤비지 말라고 달래이시며 품을 파고드는 아이들의 볼을 어루만져주시면서 원수님께서는 무엇을 하며 놀았느냐, 맛있는것을 먹었느냐고 하나하나 다정히 물어주시였다. 원아들은 손가락을 꼽으며 자랑을 하였고 재롱을 부리며 원수님께 노래도 불러드리였다. 원아들의 귀여운 모습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박수도 쳐주시였으며 아이들이 명절을 잘 쇠고있다니 기쁘다고, 하나같이 밝게 웃는것을 보니 마음이 즐겁다고 말씀하시였다.

어느덧 시간이 퍼그나 흘렀지만 원수님께서는 오늘은 원아들이 저녁먹는것을 꼭 보고 가겠다시며 저녁식사시간을 알아보시고 원아들이 밥을 먹는 시간까지 기다려주시였다. 식당에 들리시여 명절음식차림표를 보시고 아침에도 점심에도 잘 먹었구만, 원아들이 좋아했다니 정말 기쁘다고 말씀하신 원수님께서는 저녁밥을 먹는 원아들에게 어느 음식이 맛있는가 물어주시며 아이들의 구미에 맞게 같은 음식감을 가지고도 여러가지로 해먹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여러가지 음식감들을 어떻게 가공하여 먹이는가도 알아보시고 꿀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먹이는 방법도 알려주시며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자면 영양학적으로 잘 먹이고 키크기운동을 비롯한 체력단련도 정상적으로 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아들을 잘 키워 앞으로 이들속에서 이름난 과학자, 체육인, 예술인, 군인도 나오고 영웅도 나오게 해야 한다고 하시며 친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온 하루 소년단원들과 함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체101(2012)년 6월 6일 온 하루를 소년단원들을 위해 바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장에서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동무들!》이라고 몇번이나 곱씹으시며 축하연설을 하시였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소년단대표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그들에게 앞으로의 희망에 대하여 물어보시며 시간을 바치시였고 그날 저녁에는 소년단대표들과 함께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음악회 《미래를 사랑하라!》도 함께 보시며 따뜻한 정을 기울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소년단대표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소년단대표들에게 앞으로의 희망이 무엇인가고 물으시였다. 그러자 소년단대표들은 저마다 과학자, 의사, 인민군대가 되겠다며 자기들의 희망에 대하여 대답올리였다.

인민군대가 되겠다는 한 소년단원의 대답을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군사복무를 하고 제대되면 무엇을 하겠는가고 또다시 물으시였다.

제대되지 않고 일생 군사복무를 하겠다고 다시 대답을 올리자 원수님께서는 그를 대견해하시며 옆에 서있는 일군들에게 그의 대답을 기념으로 사진을 한번 더 찍으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리하여 그 소년단원은 경애하는 원수님과 기념사진을 찍고도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총참모장과 또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찍고나자 원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이제 군대에 입대하면 총정치국장의 전우가 되고 총참모장의 전우가 될것이며 또한 최고사령관의 전우가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소년단원들을 위해 자신의 귀중한 하루를 다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하나의 전설로 되여 온 나라 인민들의 가슴속에 길이길이 전해지고있다.

본사기자 한신애

교육사업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우리 나라에서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사회주의무료의무교육제도의 혜택아래 미래의 기둥감, 유능한 인재들로 준비해나가고있다.

이것은 교육사업을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로 내세우고 이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온 당(조선로동당)의 교육정책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돌이켜보면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교육제도의 력사적뿌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혁명화된 광활한 농촌지역의 혁명적학교들과 유격근거지 아동단학교들에서 면비교육을 실시하시여 교육사업의 고귀한 경험을 창조하시고 혁명적교육전통을 마련하시는 과정에 이룩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교육사업은 전적으로 당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고있다.

우리 당은 해방후 짧은 기간에 인민학교(당시)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학교들을 설치하고 나라의 경제토대가 튼튼하여지는데 따라 전반적의무교육제를 단계별로 실시하였다. 주체45(1956)년에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를, 주체47(1958)년에는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를, 주체56(1967)년부터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제를, 주체61(1972)년부터는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제를 실시하였으며 주체101(2012)년에는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봉쇄와 압살책동속에서도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에 관한 법령이 발포되고 올해 4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가장 철저한 무료교육에 기초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가 인민들의 교육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무료교육을 실시하고있다.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물론 온갖 형태의 사회교육과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도 모두 국가의 부담으로 하고있다.

이와 함께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해 늘어나는 학생수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학교건설을 앞세우고 교육사업에 필요한 교육설비와 기자재들을 충분히 보장해주고있으며 모든 학생들에게 교과서와 학용품, 교복을 국가부담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생산공급하고있다. 최근년간에 건설된 평양가방공장과 민들레학습장공장,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꾸려진 가방용천생산공정, 개건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한 공장들과 청소년과외교양거점들, 과외생활기지들은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잘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교육사업은 또한 전사회적, 전인민적지원속에 진행되고있다.

나라에서는 교육기관들에 대한 후원단체들을 지정해주고 교육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도록 하고있다. 이에 따라 많은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이 후원단체가 되여 학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물질적으로, 로력적으로 적극 도와주고있다. 후원단체의 책임일군들은 정상적으로 학교들에 나가 교육사업에서 제기되고있는 문제들을 제때에 알아보고 이 사업에 발벗고 나서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해마다 3월과 10월에는 전사회적인 관심속에 각 도, 시, 군에서 교육지원전시회가 성황리에 진행되고있어 지원열의를 더욱 높여주고있다. 그러한 속에 지원기풍은 후원단체의 범위를 벗어나 더욱 확대되고있다. 학부형들은 물론 인민군군인들도 학교건설을 비롯한 교육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정말이지 교육사업을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는 당과 국가의 옳바른 교육정책에 의해 우리 나라는 가까운 앞날에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일떠서게 될것이다.

교육위원회 보통교육성
국장 김성일

웃음소리, 노래소리 높이 울린다

들으면 들을수록 마냥 마음이 즐거워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창가에서 울려나오는 랑랑한 노래소리에 우리마저 동심에 잠겨 따라부르고 운동장에 차넘치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에 우리도 뛰여들어 숨이 턱에 닿게 뛰놀고싶은 심정이였다. 그도 그럴것이 평양초등학원을 찾았을 때 우리의 심정이 바로 그러하였던것이다.

해님따라 피여나는 해바라기를 형상한 담장이며 멋들어진 교사며 기숙사, 인공잔디를 입힌 운동장 등 한눈에 안겨오는 학원의 전경앞에서 걸음을 옮길수 없었던 우리들이였다.

학원의 정은주선생이 우리를 반겨맞아주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돌아보면 알겠지만 우리 원아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속에 학원의 교육조건과 생활조건은 정말 훌륭히 갖추어져있습니다.》

그와 함께 교사에 들어서니 마침 원아들의 우유마시는 시간이였다.

우리는 교실마다에서 울려나오는 원아들의 웃음소리에 이끌려 4학년 2반 교실에 들렸다. 원아들이 너도나도 앞을 다투어 인사를 하더니 손에 들고있던 빵이며 콩우유를 어서 맛보라고 우리에게 권하였다. 봉지에 포장된 빵이며 고뿌마다 차넘치는 우유가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워보였지만 보다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것은 구김살없는 원아들의 모습이였다.

그러는 원아들의 모습을 뒤에 두고 복도에 나오는데 우리의 눈앞에 두 원아의 모습이 안겨왔다. 그들은 《하나, 둘, 셋… 맞아. 일곱개의 별이 국자모양을 새긴 저건 북두칠성이야.》, 《그럼 북극성은 어디에 있니?》하며 승벽내기로 복도천정을 가리키는것이였다. 천정에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위치가 시간별로 변하는 북두칠성의 자리길이 새겨져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교사의 모든 공간이 지식홀, 상식홀로 되여있어 원아들의 정신도덕적, 지적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있다는것을 알수 있게 하였다.

수업에 열중하는 원아들

복도의 벽체와 천정에만도 1 000여점의 교육교양직관물들이 꽉 차있다는 정은주선생의 말을 들으며 우리가 들린 곳은 자연실이였다. 푸른 하늘과 산봉우리들이 생동하게 그려져있는 천정과 벽이며 모든 공간들에 실물처럼 립체적으로 형상된 각종 동식물들은 마치 우리에게 자연속에 들어선것만 같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범이며 사슴 등 우리 나라의 수림속에서 살고있는 동물들에 대해 배우는 원아들의 모습을 보고난 우리는 3학년 1반 교실에 들리였다.

배운지식을 다져간다.

금시 오전수업이 끝났을 때였다.

정은주선생이 애육원시절부터 경애하는 원수님을 4차례나 만나뵈온 류송과 김진성을 우리에게 소개해주었다.

(너희들이 벌써 소학교 3학년생이 되였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 애들을 대견하게 바라보는데 류송이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우리 교실에 들리신 아버지원수님께서는

체육시간의 한때

《나도 속보에 났어.》

저의 학습장을 보시면서 글씨를 또박또박 잘 쓴다고 칭찬하시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공부도 잘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원아들은 저저마다 인민군대가 되고 과학자, 체육인, 교원이 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더니 우리를 자기들의 기숙사로 이끌었다.

어린 원아들의 특성에 맞게 만들어진 개별침대며 포근한 이불, 침대에 붙어있는 서랍식옷함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솜옷과 운동복, 내의류들, 알맞는 높이에 설치된 액정텔레비죤 등 기숙사의 호실은 모든것이 원아들이 생활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이 편리하게 꾸려져있었다.

호실의 주인인 설봉은 《아버지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우리 집이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우리 집…》, 그랬다. 기숙사가 아니 학원이 그대로 원아들의 집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학원의 일군들과 교직원들에게 우리 원아들이 설음을 모르고 한점 그늘도 없이 대바르고 씩씩하며 밝고 명랑하게 자라도록 자신의 마음까지 합쳐 잘 돌봐주기를 부탁한다고, 원아들을 잘 키워 앞으로 그들속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들어 저희들은 조국의 미래인 원아들의 밝은 웃음을 위해 모든 힘과 정열을 다할것입니다.》라고 정은주는 말하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잡아흔들었다. 우리에게는 그 소리가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선률과 같이 안겨왔고 전진하는 사회주의의 동음처럼 들려왔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강성조선의 기둥감들로 억세게 자라날 원아들의 밝은 앞날을 확신하며 평양초등학원을 나섰다.

글 본사기자 김철민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침실에서

꿈을 꽃피워가는 소년단원들

꿈과 희망이 가장 많은것이 아마 학생소년들인가싶다.

과학자, 체육인, 인민군대, 음악가 등 학생소년들은 제나름의 꿈과 희망을 안고있다. 이러한 아이들의 꿈과 포부, 아름다운 희망이 현실로 꽃펴나고있는 모습을 우리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소조원들의 모습에서 다시한번 느낄수 있었다.

우리와 만난 궁전일군인 손문영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학생소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과외교육교양기지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손길에 떠받들리여 일떠선 궁전이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의해 더 훌륭히 개건되였다.

과학기술, 예능, 체육부문 등의 백수십개 소조실이 운영되고있는 궁전에는 체육관과 극장을 비롯하여 학생들의 과외활동을 위한 조건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어 누구나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다.》

우리가 처음 들린 곳은 콤퓨터소조실이였다. 여기서는 학생들에게 프로그람작성기초지식과 함께 어려운 지능프로그람작성에 이르기까지의 프로그람작성지식을 위주로 하여 배워주고있었다. 콤퓨터화면을 마주하고 각이한 도형을 그리고 응용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람을 작성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무척 대견하였다.

콤퓨터소조실

전자열람실

물리소조실

손풍금소조실

서예소조실

그들속에는 수학에 남다른 소질을 가지고있는 김리광학생도 있었다. 지도교원 박남혁의 말에 의하면 그는 수학적론리가 정연하며 착상이 매우 뛰여나다고 한다. 언제인가는 국제수학올림픽에 나왔던 문제들을 자기식의 독특한 풀이과정으로 찾아내고 그것을 프로그람으로 작성하여 동무들과 교원들을 놀래운적도 있었다. 소조에 다닌지는 비록 1년밖에 안되였지만 현재 그의 프로그람작성능력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이제 13살, 아직 붉은 넥타이를 맨 소년단원이지만 그는 20대에 박사가 될 꿈을 가지고있다.

리광이만이 아닌 수학, 화학을 비롯한 과학기술소조실들의 그 어디에서나 학생들은 탐구의 나래를 활짝 펴고 배움에 열중하고 있었다. 물리소조실의 소조원들은 실험과 실습의 방법으로 배운 지식을 공고히 다져나가고있었고 수학소조실에서는 지도교원의 강의에 학생들이 숨소리조차 죽여가며 집중하고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손풍금소조실에서는 학생들이 자그마한 손으로 손풍금건반을 누르며 연주에 열중하고있었다. 지도교원인 한미화는 30여명 소조원들의 대부분이 소년단원들인데 평양시 곳곳에서 온 학생들이라며 하루가 다르게 연주수준이 올라간다고, 지난 기간 소조에서만도 뛰여난 재능을 가진 손풍금수들이 많이 나왔다고 말하였다.

세계의 하늘가에 람홍색공화국기를 휘날림으로써 안아주고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고마운 조국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려는 체육소조원들의 야심만만한 모습도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희망의 나래를 활짝 펴고있는 학생들속에는 미술소조실의 조류정학생도 있었다. 관찰력이 남달리 뛰여나고 사물현상을 조형예술적으로 재현하는 능력이 천성적으로 높은 그는 신의주시에서 태여났다. 어렸을 때부터 집짐승들과 자연 등을 집마당이 좁다하게 그리군 하던 그는 신의주시 본부유치원에서 미술기초교육을 받으면서부터 그림솜씨가 나날이 늘어만 갔다. 그때 벌써 그는 조선화의 고유한 몰골기법을 터득하고 뛰여난 붓다루기와 섬세하고도 힘있는 묘사능력으로 훌륭한 미술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보는 사람들을 놀래웠다. 5살에 전국소묘축전에서 금메달을 받은것을 비롯하여 여러 축전에서 금메달을 받은 이 《관록》있는 꼬마미술가는 그림뿐아니라 서예에도 뛰여난 재능을 가지고있다. 주체100(2011)년과 주체102(2013)년 태양절경축전국서예축전에서 금메달을 받은 류정이다. 그의 이러한 남다른 재능은 국내축전들은 물론 국제적으로 진행된 축전에서도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이 나날 피여나는 재능의 꽃망울과 함께 그의

마음도 커만 갔다.

조류정은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소년단원들을 제일 사랑하고계신다.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에 몸소 참석하시여 축하연설도 해주시고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 대표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 세상에서 제일 좋고 훌륭한 모든것을 마련해주고계신다. 앞으로 훌륭한 건축가가 되여 아버지원수님의 사랑에 꼭 보답하겠다.》

하기에 그는 남모르게 움터나는 재능의 싹을 꽃피워주는 조국의 품이 고마워 자기의 그림작품집을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께 올려 기쁨을 드리였다.

아름다운 조국의 래일을 앞당겨오는 건축가가 되려는 류정이의 꿈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라는 생각이 우리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미래를 지향한 꿈은 그만이 품고있는것이 아니였다. 성악소조실, 가야금소조실, 조선무용소조실, 태권도소조실 등 궁전의 그 어느 소조실에 들려보아도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미래의 주인공들로 자라나고있는 학생소년들모두가 소중히 안고있는 꿈이였다.

그 꿈은 사회주의교육제도의 빛발아래 보다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더욱 활짝 꽃펴날것이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바둑소조실

가야금소조실

성악소조실

조선무용소조실

민족장단에 맞추어

강성조선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역군들로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 문제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매우 중요하고도 사활적인 문제로 나선다. 하기에 조국에서는 이 문제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고 많은 품을 들이고있다. 특히 후대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돌리며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고있다.

조국에서의 사회주의교육은 후대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키우는것을 총적목표로 하고있다.

해방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몸소 터전을 잡아주시고 세우도록 하신 중학교를 현지지도하시면서 후대들을 선진과학지식과 건전한 도덕품성, 튼튼한 체력을 지닌 나라의 역군으로 키워야 한다고 하시며 이 세가지가 흥하라는 뜻에서 학교이름을 《삼흥중학교》라고 지어주시였다.

조국에서는 지덕체교육의 첫 씨앗이 뿌려진 이 학교를 본보기로 하여 후대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보다 강화발전시켜나가고있다. 여기서 중요하게 내세운것은 후대들에게 지식과 기술만을 배워주는 순수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그들이 지식과 기술을 알기 전에 먼저 자기 수령, 자기 조국, 자기 인민을 아는 인간으로 되도록 하기 위한 정치사상교양사업에 힘을 넣고있는것이다. 실지로 우리 조국에서 후대들뿐만아니라 전체 인민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확고히 앞세워나갔기에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침략전쟁책동과 비렬한 《제재》속에서도 조국의 천만군민은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해가는 사상과 정신의 강자로 될수 있었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었다.

조국에서는 과학기술교육이 사회주의교육에서 기본으로 되기에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높은 수준에서 실시하는것과 동시에 그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특히 중등일반교육부문에서 기초과학교육과 외국어교육이 강화되는것과 함께 뛰여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수재교육바람이 세차게 일고있다. 세계적으로 인재를 키워내고 쟁취하기 위한 교육경쟁, 인재경쟁이 날로 첨예하게 벌어지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조국에서는 교육사업을 과학화, 정보화하여 학생들의 사고능력과 창조적능력을 최대로 높여주고있다. 그리고 리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결합하여 실지로 후대들을 쓸모있는 산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가진 인재로 키워나가고있다.

후대들을 정치사상적으로뿐아니라 고상한 도덕품성과 풍부한 정서를 지닌 참된 인간들로 키우는것 또한 중요하기에 조국에서는 후대들에게 사상과 지식을 심어주고 능력을 키워주는것과 함께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인간의 인격과 풍모를 훌륭히 갖추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후대들을 튼튼한 체력의 소유자들로 키우기 위한 체육교육에 힘을 넣어 모든 학교와 대학들에서는 체육의 교수화는 물론 그것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체력을 단련하고 몸을 조화롭게 발전시키고있으며 체육에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은 과외교양기지들에서 마음껏 희망을 꽃피우고있다.

후대들을 지덕체를 갖춘 인재들로 키우는데서 교육조건과 환경이 중요한 작용을 하므로 조국에서는 이 사업을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벌리고있다. 하여 학교는 물론 과외교양기지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지고있으며 학생들의 학용품에 대한 수요도 자체로 충족시켜나가고있다. 사실 크지 않은 우리 조국이 미제와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봉쇄와 압살책동을 짓부시며 경제강국을 건설하는 조건에서 후대들을 이렇게 키운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후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것이 나라와 민족의 흥망, 사회주의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사이기에 조국에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교육학을 창조하고 그 요구대로 새 세대들을 훌륭히 키워가고있다.

사회주의무료의무교육제도의 혜택속에 세상에 부럼없이 배우며 자라는 우리의 새 세대들은 강성조선의 앞날을 당당히 그리고 믿음직하게 떠메고나갈것이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부터 당을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 건설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다.

사회주의집권당을 어머니당으로 건설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도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집권당을 어머니당으로 건설할데 대한 사상을 밝히시면서 그 본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을 어머니당으로 건설한다는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고 따뜻이 돌봐주듯이 당을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세심히 보살펴주는 진정한 인민의 향도자로, 보호자로 되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머니다운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주는 일군만이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참된 당일군이 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당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 그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주체66(1977)년 8월 평양에서 5만명청소년학생들의 집단체조 《조선의 노래》연습이 한창 진행되고있을 때였다.

어느날 **김일성**경기장을 찾으시여 시연회를 지도하고 돌아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집단체조에 동원된 교원모두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손목시계를 수여하자고 하시며 빨리 표창내신문건을 작성하여 제기하라고 이르시였다.

그런데 일군들이 올린 표창내신문건에는 16명의 교원들이 빠져있었다.

장군님께서는 안색을 흐리시며 그들을 다시 료해하여보고 내신문건을 만들어 제출할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일군들이 다시 만들어 올린 명단에는 11명만 포함되여있었다. 그이께서는 이때에도 보류된 5명의 자료를 다시 료해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일군을 돌려보내신 후 인차 전화를 거시여 그들에 대하여 잘 료해해보되 어떻게 하나 긍정적인것을 많이 찾아볼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그런데 일군들이 또다시 료해를 심화시켜 장군님께 올린 문건에는 한명의 녀교원이 빠져있었다.

새벽녘까지 기다리고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건을 받아보시고 저으기 실망하신듯 안색을 흐리시며 한명은 왜 빼놓았는가고 물으시였다. 료해된 자료를 힘겹게 말씀드리는 일군에게 그이께서는 동무들의 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모든 교원들이 표창을 받고 기뻐할 때 남이 보지 않는 곳에 숨어서 혼자 몸부림치며 흐느낄 그 녀교원의 정상이 얼마나 가긍하겠는가, 나는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난다, 우리가 무엇때문에 혁명을 하는가, 사람들에게 웃음과 기쁨, 행복을 주기 위하여 혁명을 하지 않는가, 그것을 위하여 당도 있고 당일군도 존재하는것이 아닌가, 나도 그렇고 동무들도 그렇고 당을 따라오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마지막 한사람까지 품어안아 돌봐주기 위하여 가슴의 피를 끓여야 한다, 동무들이 료해한 자료를 보면 그 녀교원은 자기가 맡은 학급을 천리마학급으로 만들고 구역학과경연에서도 여러번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게 하였다는데 우리는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어야 한다, 만일 동무들이 내신명단에 그의 이름을 써넣기가 그렇게도 손이 떨린다면 좋다, 내가 써넣겠다고 하시면서 결연히 친필로 그의 이름을 쓰시고 수여할 시계의 자호까지 써넣으시였다. …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다.

하기에 온 나라 인민은 오늘도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어머니당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는 조선로동당의 품을 가리켜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안아주고 비바람, 눈보라도 다 막아주는 어머니의 품이라고, 영원한 삶의 품이라고 심장으로 노래하고있다.

윤승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경축 열병식 참가자들과 군중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6(2017)년 4월

태양절에 펼쳐진 조국의 참모습

- 보무당당히 나아가는 열병대오 -

지난 4월 조국인민들은 크나큰 환희와 격정속에 태양절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였다.

민족의 태양이 솟아오른 력사의 날을 맞이하는 온 나라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려가는 천만군민의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넘쳐있었다.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에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사회주의조선의 영상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삼가 인사를 드린 군대와 인민은 수령영생의 대화원으로 꾸려진 광장공원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축복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최후승리의 령마루로 힘차게 나아가는 군대와 인민의 앞길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다는 필승의 신심을 더욱 깊이 새겨안았다. 그리고 태양의 성지지구에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천하에 과시하며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 창조물로 일떠선 려명거리를 바라보며 사회주의선경거리의 황홀한 모습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하는 간절한 생각으로 가슴들을 적시였다.

인민군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만수대언덕과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조선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 기계화종대들의 장엄한 시위 -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의 찬란한 래일을 반드시 앞당겨올 의지를 더더욱 굳히였다. 그리고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여 추녀낮은 초가집에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보면서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주체혁명의 영광스러운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사회주의위업완성의 억년 드놀지 않는 초석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만경대일가분들의 고귀한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되새기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흠모하는 인민들의 마음은 제19차 **김일성**화축전장과 각 도의 **김일성**화전시회장들, 중앙과 각 도의 사진전람회장들과 제5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장들에도 차넘치였다.

더우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경축 중앙보고대회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한껏 터쳐놓았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은 류례없이 간고하고 시련에 찬 조선혁명을 진두에서 이끄시여 주체조선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을 위한 만년재부를 마련해주신 절세의 위인이시라고 하면서 백두산대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폭풍쳐 전진하는 조국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는 태양절경축행사의 절정을 이루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광장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로동당과 군대, 국가를 창건하시였으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이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승승장구할수 있는 만년기틀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

- 일심단결된 장엄한 모습 -

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의 축하연설에 이어 열병식이 진행되였다.

《**김일성**대원수 만만세》의 노래주악이 울려퍼지는 광장으로 항일무장투쟁시기종대, 정규무력건설시기종대, 조국해방전쟁시기종대가 열병대오의 앞장에서 보무당당히 나아갔으며 이어 근위 서울제3보병사단, 근위 서울김책제4보병사단, 근위 강건제2보병사단,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비롯한 근위부대종대들이 자랑높은 군기들을 앞세우고나아가며 무적의 총대로 조국과 혁명,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해온 성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이어나갈 의지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이어 조선인민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특수작전군종대와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종대들,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일성**정치대학, **김정일**군사연구원을 비롯한 각급 군사학교종대들과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남포혁명학원종대들, 평양시와 각 도로농적위군종대들, 붉은청년근위대종대와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대학종대들이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떨쳐갈 철석의 맹세를 안고 도도히 굽이쳐갔다.

《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사령관》의 군악이 진감하는 속에 백두산혁명강군의 불패의 군력을 보여주는 기계화종대들의 장엄한 시위가 진행되였다. 노도쳐 전진하는 기계화군단의 억센 모습을 보면서 군중들은 력사의 모진 시련과 원쑤들의 온갖 도전을 짓부시고 당당한 핵보유국, 군사강국으로 솟아오른 백두산대국의 무진막강한 군력이 있어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철리를 다시금 새겨안았다.

열병식에 이어 평양시군중시위가 진행되였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들이 장중하게 주악되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신 기발대렬이 들어서자 광장은 또다시 격정의 파도로 세차게 설레이였다.

광장으로는 공화국기폭춤대렬, 당기폭춤대렬과 청년들의 중북대렬, 군인가족, 과학자, 교원, 보건일군, 체육인, 예술인대렬을 비롯한 각계층 시위대렬이 각종 글발이 부각된 가장물, 구호판들과 함께 용용히 흐르며 일심단결된 인민의 모습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종합군악대가 《**김정은**장군찬가》의 주악에 맞추어 특색있는 대형변화로 당마크와 당기를

열병식참가자들을 열렬히 환영하는 수도시민들

새기며 군중시위의 마감을 장식하였다.

군중시위가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으며 경축의 축포가 터져오르고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석단로대에 나오시여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평양시민들은 연도에서 열병식참가자들을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진행된 청년학생들의 경축야회를 보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강국건설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청년전위들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다시금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열병식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경축 열병식 참가자들을 위한 공훈국가합창단 축하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5돐경축 예술공연 《오직 한마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려명거리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축복속에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백두산대국의 일대 번영기를 펼쳐가는 군대와 인민의 끝없는 영광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조국의 천만군민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일심단결의 위력, 무진막강한 군력을 온 세상에 펼쳐보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이 실현된 천하제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 철석의 신념으로 가슴을 불태웠다.

글 본사기자 한신애
사진 조선중앙통신

제19차 **김일성**화축전

청년학생들의 야회가 진행되였다.

신념을 안겨준 총성

보천보전투때 거리에 붙었던 포고문

보천보전투지휘장소

조국의 량강도에는 압록강을 옆에 낀 보천군이 있다.

별로 크지 않는 지역이지만 력사적인 보천보전투가 진행된 고장인것으로 하여 오늘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끊길줄 모른다.

지금도 설레이는 황철나무잎소리와 가림천의 물소리에 귀기울이면 80년전 보천보의 밤하늘에 울려퍼졌던 총소리가 메아리쳐오는듯싶다.

당시 일제는 조선을 아시아대륙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들려고 조선에 대한 인적, 물적자원략탈에 열을 올리면서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폭압을 강화하였다. 일제는 또한 《내선일체》, 《동조동근》을 떠들면서 조선의 말과 글은 물론 성과 이름까지 빼앗는 민족말살정책을 그 어느때보다 악랄하게 실시하였다.

겨레의 운명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바로 이러한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총대로 원쑤의 아성에 불을 질러 겨레의 가슴마다에 조국해방의 신심을 안겨주고 그들을 일제를 반대하는 항전에 불러일으킬 작전적구상을 펼치시였다.

산림보호구

주체26(1937)년 봄 서강회의에서 대부대에 의한 국내진공작전으로 일제침략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며 인민들에게 조국해방의 서광을 안겨줄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맹렬한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시였다.

드디여 주체26(1937)년 6월 4일 밤 10시, 보천보시가에 드리운 무거운 어둠의 정적을 깨뜨리며 위대한 수령님의 신호총소리가 울려퍼졌다.

총소리에 뒤이어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의 맹렬한 공격에 의해 경찰관주재소는 벌둥지

경찰관주재소와 포대

면사무소

농사시험장

보천보전투에 대한 당시 신문보도자료

처럼 되여버리고 면사무소, 우편국, 산림보호구 등 일제의 폭압과 략탈기관들이 불길에 휩싸이였다.

인민들은 격동과 환희에 넘쳐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독립 만세!》를 목청껏 웨치며 거리로 달려나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인민들앞에서 격동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여러분! 저 불길을 보십시오. 거세차게 타번지는 저 불길은 놈들의 최후를 보여주고있습니다. 저 불길은 우리 민족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날강도 일제놈들과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고있습니다.》

그이의 연설은 겨레의 가슴마다에 조선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고 인민들을 조국해방성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당시 일제는 보천보전투를 두고 《후두부를 꽝 하고 강타를 당한것 같다.》, 《천날동안 베여들인 새초를 한순간에 태워버린듯 한 한을 남겼다.》고 비명을 올렸다.

보천보전투후 적들이 추격해오리라는것을 예견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을 구시산에서 소탕하실것을 결심하시고 곳곳에 돌무지를 무져놓도록 하시였다. 아닌게아니라 그이의 예견대로 적들이 무리를 지어 구시산으로 기여올랐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불의의 사격에 적들은 무리로 쓰러지면서도 바위짬에 숨어 집요하게 저항하였다. 그러나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굴리는 돌벼락에 적들은 혼이 빠지고 편포짝이 되고말았다. 조선인민혁명군의 타격이 어찌나 드셌던지 뒤늦게 밀려오던 위만군부대는 먼발치에서 눈먼총알 몇방 쏘고는 구경만 하였다.

보천보전투와 구시산전투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은 일제는 《정예》를 자랑하던 조선주둔 19사단소속 함흥74련대를 포함한 2 000명정도의 대병력을 동원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을 추격하도록 하였다. 일제는 함흥역에서 련대를 떠나보내면서 요란한 장행식을 벌려놓았고 《토벌대》 대장은 황군의 위력앞에서 공산군은 추풍락엽의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허장성세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의 행동기도와 지형지물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신데 기초하여 지휘관들의 모임을 가지시고 각 부대들에 간삼봉에서 적들을 족칠데 대한 전투임무를 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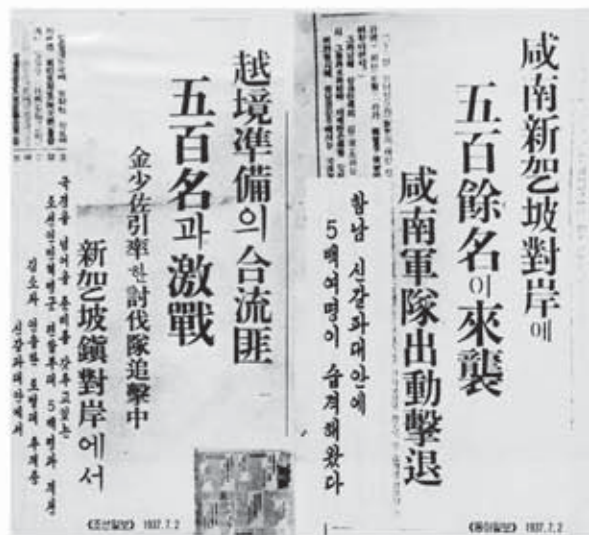
6월 30일 대원들은 적들이 짙은 안개를 리용하여 간삼봉기슭에 나타나자 가까이 접근시키고 불벼락을 들씌웠다. 첫 타격에 많은 손실을 당한 적들은 다른 부대와 합세하여 악착하게 공격하여왔으나 조선인민혁명군의 강력한 기관총사격과 수류탄벼락을 맞고 지휘체계까지 마비되였다. 대원들은 쏟아져 내리는 비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면서 달려드는 적들을 쓸어눕혔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부대들은 반돌격에로 이행하여 적들을 피동에 몰아넣고 족쳤다.

전투에서 겨우 살아남은 200여명의 적들은 날이 어두워지자 도망치고말았다. 패잔병들은 혜산을 거치지 못하고 패전한 꼴을 숨기며 함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출동할 때에는 장행식까지 하면서 떠들썩했던 함흥역이 돌아올 때는 초상난 집같은 광경이였다.

보천보전투가 있은 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민족에게 재생의 희망과 신념을 안겨준 그날의 총성은 오늘도 천만군민을 무궁번영할 래일에로 부르고있다.

글 본사기자 진룡진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咸南新乫坡對岸에 五百餘名이 來襲
咸南軍隊出動擊退
함남 신갈파대안에 5백여명이 습격해왔다

越境準備의 合流匪 五百名과 激戰
金少佐引率한 討伐隊追擊中
新乫坡鎭對岸에서

간삼봉전투에 대한 신문자료들의 일부와 간삼봉전투가 진행되였던 장소

보천보와 간삼봉전투에서 조선인민혁명군에 의해 참패를 당한 일제의 몰골을 보여주는 사진자료들의 일부

석탄증산의 불길 드높다

발전소와 금속, 화학공장들의 석탄수요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득장청년탄광에서 세차게 일고있다.

지난 4월까지 상반년 석탄생산계획을 끝낸 탄광의 탄부들은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모두가 혁신자가 되여 떳떳이 맞이할 의지를 안고 석탄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탄광기사장 김명학은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보고에서 탄광들에서 능률적인 채탄방법을 받아들이고 갱내작업의 종합적기계화, 운반의 다양화를 적극 실현하며 선탄공정을 완비하여 질좋은 석탄을 소비단위들에 보내주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CT탐사기, 탄성파탐사기를 받아들여 새 탄밭을 적극 조성하는것과 함께 굴진의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석탄증산의 앞장에는 2갱과 3갱이 서있다. 굴진공들은 압축기에 직류조작체계전원을 새로 도입하여 전기를 극력 절약하고 수입하여 쓰던 20㎥나사압축기조종단을 자체실정에 맞게 개조하여 현존전압에서도 정상가동할수 있게 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도입하여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고있다. 굴진공들의 뒤를 따라 채탄공들은 각이한 탄층조건에 맞게 콘베아에 의한 중단붕괴식채탄법을 도입하고 오가드릴(석탄층이나 암석층속에서 장날이 돌아가면서 그것을 깎아내거나 부스러뜨려 발파구멍을 뚫는 기계)로 전진속도를 배로 높이며 채탄장을 넉넉히 마련해가고있다.

석탄생산량이 늘어나는데 맞게 갱들에서는 막장들에 선수평적재기를 새로 제작도입하여 적재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더욱 높이고있다.

굴진공 박용남은 이렇게 말하였다.

《갱내작업의 종합적기계화, 운반의 다양화실현, 이것이 생산장성의 비결이다. 우리들은 과학기술의 힘으로 석탄생산을 다그쳐 만리마시대의 하루하루를 최고의 실적, 최상의 성과로 빛내여나감으로써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을 기어이 앞당겨 끝내겠다.》

글 본사기자 유선화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과학기술을 앞세워 생산에 박차를

종합조종실

대안친선유리공장은 조국의 유리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공장이다.

지난 시기 공장은 미래과학자거리건설, 북부피해지역 복구건설, 려명거리건설 등 나라의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 제기되는 유리제품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 건축물들의 완공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지금 공장의 종업원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유리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공장에서는 생산정상화의 비결을 자력자강과 과학기술에서 찾고 이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유리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판유리직장의 생산자들이 이 사업을 잘 해나가고있다. 직장에서는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모두가 기계설비들에 정통하고 능숙하게 다루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최근년간에만도 공장의 기술자들과 지혜를 합쳐 초음파에 의한 중유물유탁기술을 받아들여 년간 수백t의 중유를 절약하고있다.

더 많은 유리를 생산하여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보내주려는 이곳 생산자들의 열의와 창발성에 의해 질좋은 유리들이 흐름선을 타고 쉬임없이 흘러나오고있다.

여러가지 모양의 유리생산을 위해

그런가 하면 강질유리직장의 생산자들은 수입하지 않고서는 가공할수 없다던 종전의 개념에서 벗어나 기술혁신으로 종합가공기와 절단기의 드릴날물개와 절단날자동압력조절장치, 절단날공구물개축과 수감부축을 국산화하여 각종 규격의 강질유리제품생산정상화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이들만이 아니다.

원료직장, 생필직장, 전기자동화직장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 직장들에서도 원료와 연료,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공장의 일군인 로익은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올해 신년사과업관철과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높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공장 종업원들의 기세는 대단히 높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유리제품의 가지수를 늘이며 그 질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겠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더 많은 판유리를 생산

각이한 규격의 강질유리들이 생산된다.

락원의 숨결이 높뛰는 곳에서

평안북도 신의주시는 압록강 하류에 자리잡고있는 국경도시이다.

이 국경도시가 지난 세기 80년대말부터 남쪽으로 넓어지기 시작하였다.

신의주사람들은 이 지역을 흔히 남신의주라고 부르고있다.

남신의주지역이 미국에서 살고있는 백문규동포의 고향인것으로 하여 우리는 바로 이 고장을 취재목적지로 정하였다.

하기는 백문규동포의 조카 백학영이 이 고장에 자리잡고있는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서 부원으로 일하고있다는것을 알고있는 우리로서는 마침이 아닐수 없었다.

우리를 만난 그는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며 자기 삼촌이 고향을 찾은것은 27년전인데 몰라보게 변모된 자기 고향을 잡지에서라도 보게 되면 정말 기뻐할것이라며 우정이라도 시간을 내여 우리를 돕겠다는것이였다.

신의주제1중학교에서

우리는 그의 안내를 받으며 락원기계련합기업소부터 먼저 돌아보았다.

기업소는 굴착기와 산소분리기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대형기계와 대상설비들을 계렬생산하는 기계공장이였다. 지난해 함북도 북부피해지역에 유압식굴착기들을 빠른 시일안에 만들어 보내준 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지금은 80hp뜨락또르협동품과 0.1㎥ 유압식뜨락또르굴착기들을 생산하고있었다.

역시 락원의 로동계급이 달랐다. 공장에는 주체41(1952)년 6월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 전쟁이 끝나면 복구건설은 자기들이 하겠으니 너무 근심하지 마시라고 충정의 맹세를 올리고 전쟁승리에 커다란 기여를 한 신포향을 비롯한 많은 로동자영웅들이 배출된것과 주체98(2009)년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동해안의 홍남에서 이곳까지 천여리길을 달려오시여 맡겨주신 15 000㎥대형산소분리기생산과업을 훌륭히 수행한 남다른 자랑이 있었다.

백학영은 락원의 로동계급이 위대한 장군님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대형산소분리기를 만들던 때의 이야기를 감동깊이 들려주고나서 기업소의 많은 종업원들이 남신의주지역에서 살고있는데 거리를 한번 돌아보자며 우리를 이끌었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서 생산한 굴착기들

그는 시원하게 뻗은 도로량켠에 즐비하게 늘어선 7~8층짜리 살림집들을 가리키며 기업소종업원들이 살고있는 살림집도 알려주고 자기 집도 대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지난 시기 이 지역은 거의나 진펄이였습니다. 신의주인민들이 자체의 힘으로 살림집들도 건설하고 동시에 여러 공장, 기업소들과 교육, 보건, 문화시설들도 일떠세웠습니다. …》

우리는 그의 말을 들으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봄향기화장품이 질좋게 생산되고있는 신의주화장품공장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지배인 김혜영을 비롯하여 이 공장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속에서 10여명의 학위소유자들이 나왔으며 봄향기화장품은 제32차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특등을 쟁취하였다. 우리는 봄향기화장품의 질에 대해 대체적으로 가늠이 갔다. 부원 전영철은 지난해 프랑스 비오-이씨(BIO-EC)연구소에서 프랑스 란꼼(Lancom)회사제품과 봄향기화장품의 항로화능력을 대비평가하였다고 하면서 그 분석결과가 인터네트망에 오르자마자 여러 나라의 화장품제조기업들이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짧은 기간에 자체기술집단의 능력으로 고급화장품을 개발한데 대해 감탄하면서 저마다 합작을 제기해왔다고 하는것이였다.

우리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화장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문명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있는 이곳 로동계급의 모습을 뒤에 남기고 거리에 다시 나섰다.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거리에서 우리는 줄지어 달리는 콩우유차들을 바라보며 여기 어디에 콩우유공장이 있는것이 아닌가고 백학영에게 물었다. 그는 콩우유공장이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면서 그곳에서 생산되는 콩우유가 신의주시안의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들에 매일 정상적으로 공급되고있다는것이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있는 닭공장, 버섯공장, 남새온실, 송한과수농장도 모두 이 지역에 있었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높이 울려나오는 애육원과 육아원, 초등학원과 중등학원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다.

그 어디나 돌아볼수록 우리는 이 고장 인민들이 높뛰는 락원의 숨결을 안고 만리마의 속도로 더욱 부흥할 래일을 앞당겨오고있다는것을 깊이 절감할수 있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인민을 위한 일에 몸을 잠그어

평안남도 순천시인민위원회 사무장 박종운에게는 조국인민들이 누리는 행복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지난해 9월 중순 어느날이였다.

뜻밖의 사고로 대퇴가 골절되여 수십여일째 입원치료를 받고있던 박종운은 병이 완치되려면 좀더 시일이 걸려야 하였으나 병원문을 나섰다.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는 의료일군들과 맏아들(순천시인민병원 외과의사)의 권고를 그가 굳이 마다한 리유가 있었다. 며칠전 조국의 북부지역에서 때아닌 돌풍과 무더기비가 쏟아져 수많은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을 휩쓸어 사람들이 한지에 나앉았다는 소식과 함께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승리를 이룩하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호소문을 신문과 방송으로 전해듣고 그는 도무지 병원침대에 누워있을수 없었던것이였다.

시인민위원회일군들이 《채 완쾌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 일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라며 그를 맞이했다.

박종운은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이젠 다 나았소. 회령시와 온성군, 무산군을 비롯한 함경북도의 6개 지역을 휩쓴 피해가 우리들이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참혹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당(조선로동당)의 의도대로 피해지역 인민들을 돕기 위한 사업부터 짜고들어야 하겠소.》

박종운은 곧 일에 파묻혔다. 조직정치사업을 내밀고 수시로 협의회를 진행하고 일군들을 단위들에 파견하고… 불편한 몸이지만 사무실에서 침식하기가 일쑤였다.

그런 속에 순천시민들의 지성이 깃든 수많은 물자들이 마련되였다. 그속에는 박종운과 그의 가정의 성의도 깃들어있었다.

어느날 그가 피해지역의 학교와 유치원, 탁아소들에 보낼 교구비품들을 생산하는 단위에 내려갔을 때였다. 그런데 시제품으로 만들어놓았다는 그 비품들이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그곳 일군들과 마주앉았다.

사업토의를 하는 박종운

《우리는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10년 아니, 그 이상을 내다보고 하나를 만들어도 높은 수준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피해지역 아이들을 위한 일에서야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제 자식을 위하는 심정에서 우리 다시 생각해봅시다.》

하여 교구비품들의 도안이 아이들의 심리에 맞게 다시 그려지고 그에 따르는 설계와 생산조직, 자재보장사업이 뒤따랐다. 그는 교구비품생산자들과 침식을 같이하며 걸린 문제들도 풀어주고 질보장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생산자들의 비등된 열의에 의해 교구비품생산은 10여일이나 앞당겨 끝낼수 있었다.

그 나날 박종운은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었지만 불행을 당하고 고생하는 피해지역 인민들을 위해 자신의 적은 힘이나마 바쳐진다고 생각하니 이름 못할 감정속에 마냥 가슴이 부풀어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북부피해지역으로 첫 지원물자를 렬차에 실어 떠나보내던 날 박종운의 생각은 여느때없이 깊어졌다.

온 나라 인민이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한식솔로 화목하게 사는 내 나라, 불행을 당하면 그 불행을 자기 일처럼 여기며 너도나도 떨쳐나 그 불행을 가셔주는 내 나라, 누구나 배울 걱정, 치료받을 걱정, 집걱정 등 온갖 걱정을 모르고사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

내가 자본주의일본땅에서 살았다면 이런 행복에 대해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는가.

그는 자기가 사회주의조국에서 체험한 그 모든것이 다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일본땅에서 살다가 조국의 품에 안겨 57년간, 남들과 꼭같이 살며 배우고 오늘은 한개 시의 일군으로 성장한 그였다.

그는 수십년전 순천비날론공장(당시)이 건설될 때 시안의 청년들을 위훈창조에로 이끌었으며 준공식장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도 지니였다.

가족들과 함께

사무장으로 사업하는 기간 그는 시의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으며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시안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사업 그리고 교육단위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개선하는 사업 등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진척시켜나가도록 하였다.

이런 그를 두고 순천시인민들은 《우리 사무장》이라고 정답아 부르며 기쁜 일이 생겨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를 먼저 찾군 한다.

박종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행복은 위대한 수령을 한가정의 어버이로 모신데 그 뿌리를 두고있습니다.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며 한가정을 이룬 내 조국에서 사는 보람을 그 어디에도 비길수가 없습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해

상 식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할 로화를 막는 약

어떤 사람들은 늙지 않고 건강하려면 로화를 막는 약을 매일 먹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고있다. 많은 량의 항로화약을 오래동안 쓰면 더 좋다고 하면서 이런 약들을 오래먹는 사람들속에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므로 오히려 건강장수에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비타민E는 대표적인 항로화비타민으로서 젊음을 유지하고 로화를 늦출 목적으로 많이 써오고있지만 6달이상 먹은 사람들속에서는 혈소판응집과정이 촉진되고 혈전이 생기게 된다. 매일 400㎎씩 1년이상 쓴 사람들속에서는 특히 남성호르몬제와 같이 썼을 때 혈전성정맥염이 생겨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다.

비타민C도 이름난 항로화비타민이지만 약용량이 초과되면 설사를 하거나 콩팥결석이 생길수 있다.

미량원소들도 적당한 량을 보충하면 로화가 지연된다는것이 알려져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지나치게 많은 량을 오래동안 쓰면 여러가지 중독증상이 나타나 건강을 나쁘게 한다.

실례로 항로화작용이 있는것으로 알려져있는 아연에 중독되면 메스꺼움, 게우기,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고 코발트는 심장을 침범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며 셀렌중독이 되면 탈모, 손톱이상, 피부탈색, 위장기능장애, 신경과민, 우울증 등이 생긴다.

항로화작용이 있는 보약들도 잘못 쓰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난다.

항로화작용이 뚜렷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진 고려인삼도 람용하면 몸에 해롭다. 매일 인삼 32g이상을 오래동안 먹으면 인삼람용증후군이 일어난다.

꿀도 장수영양식품으로, 장수보약으로 오래전부터 알려져있지만 꿀을 많이 먹으면 중독을 일으킨다.

인삼과 벌풀을 섞어만든 쌍화환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중추신경계통이 과흥분되여 발광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 많은 량의 약물을 오랜 기간 쓰는 과정에 몸안에 쌓이고쌓여서 생기는 부작용이므로 제정된 용량을 일정한 기간 쓰는것이 좋다. 그리고 비타민과 미량원소는 될수록 음식물을 통해 섭취하는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약물형태로 쓰는 경우에는 몸안에서 해당 성분들을 재보면서 과잉축적되지 않도록 약먹는 기간을 조절해야 한다.

*　*　*

Young Oberhofer 12920 125th Ave Court East, Puyallup
WA, 98374 U.S.A. To Ju Yong Ok

통일의 날을 함께 맞이합시다

안녕하십니까, 고모.

80고령의 년로하신 고모에게 그동안 안부 한번 묻지 못하고 살아온 이 조카를 책망해주십시오. 저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고모와의 혈육의 정은 의연히 이어져있습니다.

아버지가 곁을 떠난지도 벌써 10년이 되여옵니다. 아버지에 대한 추억에 잠겨있느라니 고모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져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감으신 소식을 눈물속에 고모에게 전한 후 고모가 보내온 회답편지를 우리는 아직도 보관하고있습니다.

《오라버님이 그토록 바라던 통일의 날도 보지 못하고 가셨으니 더욱 가슴이 아프다.》고 쓴 편지의 구절이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가슴이 미여집니다.

그 누구보다도 못 견디게 통일을 그리워한 아버지, 남조선과 미국에 사는 어머니와 형제들을 만날 날을 앞당기는 심정으로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해온 아버지였습니다.

고모도 알고있다싶이 저의 아버지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의용군으로 조선인민군에 입대하여 침략자 미제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웠으며 전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다함없는 은정속에 대학공부를 하였고 년로보장을 받는 날까지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정치적신임을 받으며 나라의 중요직책에서 일하였습니다.

자기 한몸을 돌보기 전에 위대한 장군님의 수도건설구상을 받들어나가는것이 의리를 다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늘 침식을 잊고 사업하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졌을 때 나라에서는 수많은 고가약과 보약들을 보내주었으며 의료일군들은 뜨거운 정성을 기울여 아버지의 생을 120여일이나 연장해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자기 직무를 놓은지 14년이나 되였을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나라에서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기관장의로 하여주었고 유가족들의 생활상문제까지 일일이 보살펴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은 당의 품속에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려가고있습니다.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관현악단의 음악편성원으로 오래동안 사업하던 저는 얼마전에 박사원 지도교원으로 조동되였으며 안해는 여전히 평양영화음악록음소에서 가야금연주가로 있습니다.

외동딸 은혜는 얼마전 평양연극영화종합대학 촬영학부 사진촬영학과를 졸업하고 조선사진가동맹 중앙위원회에 배치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평범한 대학생이였던 은혜가 창작한 《론쟁》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보아주시고 과분한 평가를 주시였습니다.

현옥누이네도 현숙누이네도 아무 근심걱정없이 건강한 몸으로 모두 잘 있습니다.

현옥누이는 저의 편지에 고모가 꼭 평양에 오시라는 말을 써야 한다고 몇번이나 당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평양에 한번 꼭 오십시오.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매일매일 몰라보게 전변되는 평양의 모습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군 합니다. 얼마전 태양절을 맞으며 려명거리가 또 멋들어지게 일떠서 사람들이 새집들이를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만리마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며 새로운 기적과 위훈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고있는 조국인민들속에 바로 우리도 서있습니다.

그럼 저의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던 통일의 날을 꼭 함께 맞이하자는 약속을 남기며, 그러자면 부디 몸건강해야 한다는 당부를 남기며 이 조카는 이만 펜을 놓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평양시 평천구역 미래동
76인민반 주현철

통일은 우리모두의 일

나는 지금까지 여러차례 조국을 방문하였다. 매번 조국관광이 방문목적이였다. 경치좋고 물맑은 아름다운 조국의 여러곳을 돌아보는것이 여생의 락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던 나에게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 통일자전거행진이 진행된다는 소식이 날아왔다.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는 성스러운 길은 누가 시켜서, 누가 이끌어서 나서는것이 아니기에 나는 통일자전거행진단의 한 성원이 되기를 열렬히 희망하였다.

마침내 나의 그 희망은 실현되여 이렇게 조국땅을 밟게 되였다.

조국에 와서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앞에 섰을 때 나는 예전에는 느낄수 없었던 통일의 절박성을 뼈아프게 느끼게 되였다.

우리 통일자전거행진단 성원들은 조국통일은 온 민족이 함께 힘을 합쳐 이룩하여야 할 민족공동의 과제이라는 일치한 견해를 가지고 조국땅을 가로지른 분렬장벽이 물먹은 담벽처럼 허물어지게 될 통일의 날을 그리며 판문점으로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또 달리였다.

온 겨레가 바라고 또 바라는 조국통일을 위한 일에는 네일내일이 따로 없다.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우리 조선민족모두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통일성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길이 바로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다.

앞으로 통일을 위한 길에 나의 모든것을 다 바치겠다.

중국 료녕성 심양시 김광옥
[주체105(2016)년 10월]

민족의 향취 넘쳐나는 곳

두번째로 조국에 오는 나의 마음은 날개라도 돋친듯싶었다.

그처럼 와보고싶었던 조국에 또다시 온다고 생각하니 잠이 다 오지 않았다.

비록 두번째로 오는 조국이였지만 왜서인지 본가집에 온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지고 만나는 사람들모두가 친형제처럼 느껴지는것이였다. 그래서 나는 따스한 잠자리에 누워서도 생각해보았고 참관을 가면서도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그러느라니 조국의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그리고 혈육처럼 진정을 다해 대해주는 조국인민들과 지어 매끼 먹는 음식들이 눈앞에 어려왔다.

그가운데서도 식사때마다 한번도 빠지지 않고 식탁에 오르는 음식인 김치가 참으로 인상깊었다. 찡하면서도 향긋하고 그러면서도 젓갈과 고추, 생강, 파, 마늘 등 온갖 조미료들이 조화로운 맛을 내는 김치는 무엇이라고 말할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였다. 민족의 향취가 살아나는 조선김치의 진맛을 나는 조국에 와서야 알게 되였다.

민족의 향취가 넘쳐나는 곳, 이곳이 바로 우리 조국이였다. 그래서 조국에 오면 본가집에 온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지고 사람들모두가 친형제처럼 생각되는것이였다.

자기의것을 사랑하는 정신을 가슴에 심어주고 자기의것을 빛내여나가는 마음을 새겨주는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하겠다.

중국 료녕성 본계시 리정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앙보고대회

지경너머에서 일고있는 흠모의 열기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수령님을 흠모하는 겨레의 마음은 지경너머 해외에서 살고있는 동포들의 가슴속에서도 뜨겁게 굽이치고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는 도꾜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5돐경축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를 열고 위대한 수령님은 일본땅에 끌려와 망국노의 피눈물을 흘리던 재일동포들에게 조국해방의 환희를 안겨주시고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해외공민의 영예를 안겨주신 재생의 은인이시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재일동포들은 중앙대회뿐만아니라 태양절을 경축하여 펼친 금강산가극단 예술인들의 음악무용종합공연과 총련중앙사진전시회 등을 통해서도 총련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재일조선인운동을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총련건설사상과 불멸의 령도업적을 이 세상 끝까지 빛내여나갈 결심과 의지를 다시금 굳게 다지였다.

길림에서 진행된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

사진 및 도서전시회가 진행되였다.

료녕지구협회 결의편지채택모임

태양절경축예술공연이 진행되였다.

중국 심양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

일본뿐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살고있는 동포들도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흠모하는 자기들의 마음을 터쳐놓았다.

그가운데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항일혁명투쟁사가 력력히 깃들어있는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살고있는 동포들의 마음은 더더욱 뜨거웁고 절절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는 심양과 연길, 길림에서 다양한 태양절경축행사들을 펼쳐놓았다. 행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은 조선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수령이시며 그이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남기신 불멸의 업적은 영원할것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

재중동포들은 길림육문중학교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에 자기들의 마음이 담긴 꽃바구니와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뜻깊은 이곳에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앙보고대회를 가지였다.

대회에서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온 겨레의 절절한 념원에 받들려 민족의 태양이 솟아오른 대통운의 날이며 인류의 앞길에 자주시대의 려명이 밝아온 경사의 날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에는 인민의 운명개척과 세계정치사에 이름을 남긴 정치가와 위인들이 적지 않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용약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80고령에 이르는 오랜 세월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 고매한 덕망으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시며 20세기를 반제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로 빛내이신 걸출한 수령, 위대한 혁명가는 없었다고, 20세기를 자주의 세기로 빛내이신 위대한 수령님은 인류의 심장속에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고계신다고 격찬하였다.

재중동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원수님의 령도를 받들어 조국의 통일과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애국사업에 한몸 다 바쳐나갈 불타는 결의를 담은 편지를 올리였으며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 도서 및 사진전시회와 태양절경축공연을 보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고있는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새겨안았다.

길림뿐아니라 심양과 연길에서도 위인흠모의 열기가 뜨겁게 분출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료녕지구협회의 동포들은 심양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자기들의 충정의 마음과 결의를 담은 편지를 올리였으며 조선기록영화 《인민을 위한 령도의 나날에》를 관람하면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남기고가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우리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는것을 깊이 절감하였다.

재중동포들은 중국인사들이 주최한 태양절경축 중국 심양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장을 돌아보고 연길의 조선동포들로 무어진 연변한림악단에서 준비한 《4월의 봄》음악회도 관람하면서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그분들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원수님을 더 잘 모셔갈 충정의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연길에서 진행된 《4월의 봄》음악회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정국

태양절경축행사의 성과적보장을 위해

조국의 천연기념물 (5)

이번호에서는 함경북도에 있는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지리적으로 산이 90%이상이고 전반적으로 지대가 높으며 바다를 끼고있는것이 특징입니다.

이곳에는 많은 희귀한 천연기념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칠보산지구에 있는 식물인 운만대신의대군락과 개심사약밤나무, 고진소나무와 호수인 무계호, 기암인 해칠보솔도와 로적봉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운만대신의대군락은 칠보산의 운만대에 퍼져있는 우리 나라 특산식물의 하나입니다. 운만대는 함경북도 화대군소재지로부터 북동쪽으로 28㎞ 떨어진 목진리에 있습니다. 신의대(대과의 사철푸른 대나무)의 뿌리는 가지를 많이 치며 줄기는 4년정도 자라고 50~150㎝ 높이로 크며 구멍은 2㎜정도입니다.

이 신의대군락은 6개 구역에 퍼져있는데 그 면적은 20여정보입니다.

원래 남방식물계통에 속해있는 신의대가 이곳에 퍼진것은 고려말기 우리 선조들이 외적들을 반대하여 싸우는데 필요한 활과 화살을 마련하기 위해 남쪽지방에서 가져다 심은것으로 전해져오고있습니다.

개심사약밤나무는 함경북도 명천군 보촌리 개심사 대웅전뒤에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0년전에 심은 이 나무는 원모체는 죽고 거기에서 난 두번째 대가 살아서 밑둥둘레 3.5m, 높이 9m, 나무갓직경 7m정도로 자라났는데 그 밑그루에서는 또다시 세번째 대가 자라고있습니다.

나무는 해마다 6월 중순경에 꽃이 피고 9~10월에 밤송이가 익는데 밤알은 설사를 멎게 하고 꽃은 살충제로 효능이 높아 약밤나무라고 불리우고있습니다.

고진소나무는 명천군 포하리의 어촌마을에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여년전에 이 고진어촌에 살던 한 로인이 원산지방에서 색다른 소나무 세그루를 얻어다 심은것으로 전해지고있는데 그 모양이 아름답습니다.

소나무는 밑둥둘레가 5.2m이고 높이가 25m, 나무갓직경이 동서 18m, 남북 22m이며 3그루가 한뿌리로 엉켜있고 그 매 그루에서는 2개의 가지가 자라나 총 6개의 가지로 뻗어있습니다.

이 나무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굵은 소나무중의 하나입니다.

무계호는 함경북도 어랑군의 무계리에 있는 자연호수입니다. 무계호의 두리는 비교적 평탄하지만 호수가는 현무암이 드러난 벼랑으로 되여있습니다.

무계호는 북동-남서로 길게 놓여있고 면적은 18㎢, 둘레는 8.5㎞, 길이는 3㎞이며 물깊이는 최대 7m, 평균물깊이는 3.8m입니다.

호수에는 물고기들이 많으며 호수밑바닥에 깔려있는 감탕은 병치료에 널리 리용되고있습니다.

해칠보솔도는 함경북도 명천군 보촌리의 앞바다에 있습니다. 솔도는 바다물과 심한 바람의 작용으로 흐름무늬바위와 진주바위가 드러나서 이루어진것인데 2개의 섬으로 되여있습니다. 섬의 높이는 34m이고 둘레는 0.35㎞가량됩니다. 솔도는 룡굴, 벼랑, 기암 그리고 우거진 솔밭과 모래불이 바다와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 기묘하고 경치 또한 아름답습니다.

우리 조국의 이름난 명승지인 칠보산지구에 있는 해칠보솔도는 오늘 근로자들의 휴양관광지로 청소년들의 과학탐구대상으로 널리 리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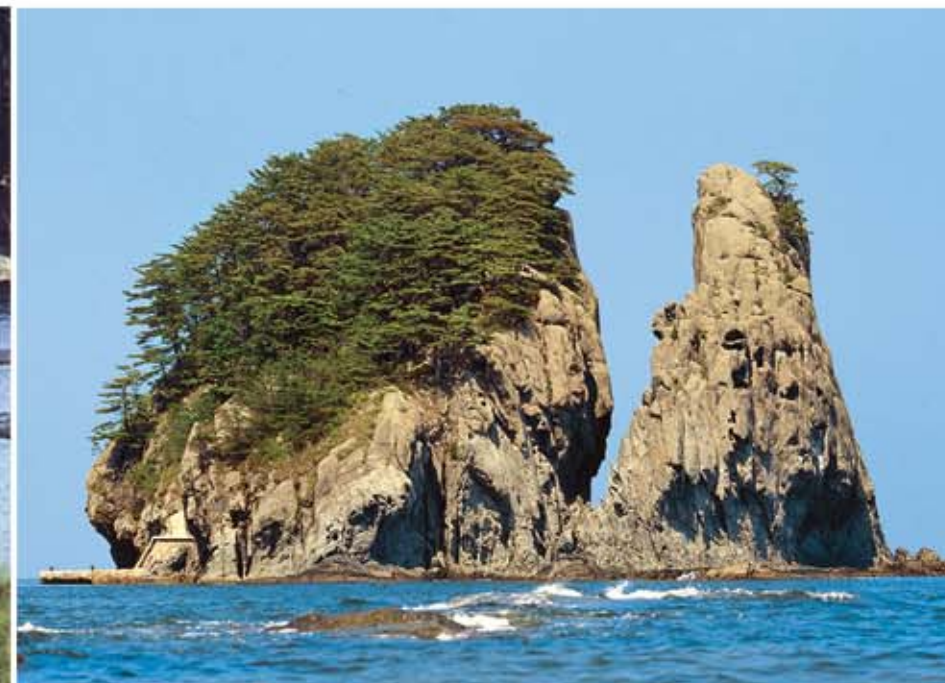
로적봉 역시 명천군 보촌리에 있습니다. 로적봉은 수천수만개의 쌀가마니를 쌓아놓은듯 하다고 하여 예로부터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높이는 57m이고 그 생김새는 원추모양입니다. 봉우리의 전면에는 규칙적인 틈결이 있는데 그 틈결마다에는 소나무, 단풍나무들이 자라며 밑에는 보촌천의 물이 감돌아흐르고있습니다. 주변에 둘러싸인 기암괴석들과 해당화와 참나무 등은 이곳의 아름다운 풍경을 더욱 돋구어주고있습니다.

로적봉

조선자연보호련맹 중앙위원회 연구사 김지향

개심사약밤나무

고진소나무

해칠보솔도

고구려의 언어와 문학

조선인민은 오랜 력사적시기에 걸쳐 피줄과 언어를 같이하여왔다.

새로운 봉건국가로 출현한 고구려는 건국후 소국통합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부여 그리고 동족의 나라였던 고조선의 옛땅을 수복하고 중부조선지역까지 차지한 대국으로 되였다. 이것은 고구려로 하여금 말과 글에서도 민족적인 통일적발전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고구려의 말과 글에 대한 자료는 많지 못하다. 하지만《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옛기록들에 남아있는 고장이름, 사람이름, 벼슬이름과 일부 자료들을 통하여 고구려에서의 언어구조와 글자생활에서 이룩된 발전면모를 알수 있다.

옛 기록들에는 고구려의 언어가 부여나 고조선, 백제, 신라와 거의 같았다는 사실을 전하고있다. 고구려건국이후 1세기까지 주변의 소국들을 통합하는 과정에 그 언어는 더욱 풍부화되였다. 고구려의 언어는 이전 시기 여러 작은 집단의 언어가 가지고있던 분산성을 극복하면서 통일적지향성과 문화적풍부성을 갖추게 되였으며 어휘, 어음이나 문법의 측면에서도 차차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였다. 한편 B. C. 수세기전부터 우리 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한문은 고구려시기에 이르러 사람들의 언어문자생활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되였으며 나중에는 한문이 국가적인 글자로 리용되게까지 되였다.

그러나 언어와 문자의 불일치는 문화발전에 지장을 주지 않을수 없었다. 이로부터 고구려사람들은 한자와 우리 말사이의 불일치성을 극복하기 위해 한자를 리용하여 우리 말을 적어내는 독특한 표기방법-리두식서사체계를 발명하여 쓰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1913년에 평양성 내성 장경문남쪽성벽에서 발견된《평양글자새긴성돌》의 글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글은 566년에 새긴것으로 인정되는데 오직 리두식으로 읽어야만 뜻이 통하는 리두식문장이다.

이와 함께 고구려사람들은 표현력이 풍부한 우리 말을 리두로 정확히 적기 위해 종래의 한자에는 없는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쓰기도 하였다.

언어생활에서 이룩된 성과에 토대하여 고구려사람들은 진보적내용과 예술적다양성을 가진 문학유산들을 수많이 이룩하였다.

고구려의 문학은 그 주제령역이 비교적 넓었다. 거기에는 사회적모순을 반영한것, 반침략애국투쟁을 그린것 등 현실주제의 작품들도 적지 않았고 문학적형상수준도 높았다. 고구려에서는 국가발전의 초기부터 구전문학과 함께 서사산문문학, 시문학 등이 발전하였다.

구전문학작품가운데서 오늘까지 전해오는것으로는 력사설화들인 《주몽설화》, 《수양제의 말로》, 《을지문덕이야기》, 《록족부인이야기》, 《한씨미인이야기》, 《견우와 직녀전설》 등과 소설 《온달전》, 구전우화 《토끼와 거부기이야기》, 인민가요인 《래원성》, 《연암》, 《명주》 등이 있다.

《주몽설화》는 고구려의 건국설화로서 광개토왕릉비,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국리상국집》, 《제왕운기》, 《세종실록》 지리지 등의 력사기록들에 기록되여있다. 《주몽설화》에는 현실세계에는 있을수 없는 신화적인 색채가 비껴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고대말기, 봉건초기의 복잡한 사회력사적관계를 반영하고있으며 고구려건국과정에 실지로 있었던 력사적사실을 기본줄거리로 하고있다.

소설 《온달전》은 고구려의 공주와 평범한 온달과의 사랑이야기를 통하여 근로하는 인물들을 비교적 진실하게 보여주고있으며 《토끼와 거부기이야기》도 인민들의 슬기로운 기지와 봉건국왕에 대한 비교적 신랄한 풍자를 우화적수법으로 잘 그리였다.

고구려의 대표적인 가요로는 《인삼노래》를 들수 있다.

이처럼 고구려의 말과 글, 문학은 고구려의 현실과 고구려사람들의 생활감정을 다양하게 반영하면서 자기 발전의 길을 걸어왔으며 특히 반침략적애국문학은 봉건시대의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리정철

개성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7)

- 표충비 -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유적가운데는 표충비도 있습니다.

표충비는 개성시 선죽동에 있는데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세운것입니다.

표충비는 고려충신으로서의 절개를 지켜 선죽교에서 피살당한 정몽주(1337년-1392년)의 충절을 찬양하여 세운 비입니다.

비각안에 동쪽을 향하여 서있는 2개의 비가 있는데 북쪽의것(높이 3. 17m)은 1740년 영조(통치년간: 1725년-1776년)왕시기에 세운것이고 남쪽의것(높이 3. 58m)은 1872년 고종(통치년간: 1864년-1907년)왕시기에 세운것입니다. 두 비석은 같은 짜임새인데 바닥돌, 거부기받침, 비몸, 비머리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가운데서 비몸만 거무스레한 대리석이고 나머지는 다 회색의 화강암을 다듬어 만들었습니다.

표충비의 바닥돌은 넙직한 대돌로 만들었습니다.

비의 받침은 10t이 넘는 통돌로 거부기조각을 하였습니다. 조각은 발을 힘있게 디디고 목을 쑥 내민 거부기의 모습을 형상하였는데 그 모습은 아주 름름합니다. 길다란 목, 툭 튕겨나온 눈, 이발이 드러나게 벌린 아가리, 안으로 오그라든 뾰족한 4개의 큰 앞이와 어금이, 옆으로 나온 배에 새긴 선들, 힘있게 디딘 4개의 발과 그 발톱들, 균형이 잡히면서도 두껍고 큼직한 잔등, 목부분의 힘있고 굵직한 선 등은 거부기의 굳센 기질과 특징적인 자세를 유감없이 보여주고있습니다. 특히 거부기등딱지무늬와 련꽃모양의 비몸자리돌은 높은 조각기교를 보여줍니다. 걸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비몸에는 글자들이 오목새김으로 새겨져있습니다. 비머리는 합각지붕형식이며 그 처마밑에는 각각 4마리씩의 룡틀임조각을 하여 비석의 기념비성과 장식성을 돋구어주고있습니다.

비문은 왕이 썼다는 시, 비석을 세우게 된 동기 등 정몽주의 《충성》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여있습니다.

비각은 정면 4간(11. 41m), 측면 2간(5. 25m)의 합각집이며 흘림기둥우에 2익공두공을 얹고 모루단청을 입혔습니다.

표충비는 조선봉건왕조시기 통치배들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운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선조들의 발전된 예술적재능과 문화수준이 깃들어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표충비를 돌아보시고 표충비의 거부기조각은 규모가 매우 크고 훌륭하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우리 선조들의 문화수준이 아주 높았다는것을 잘 보여준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유선화

조선수예의 력사를 거슬러

저는 얼마전 평양시 평천구역에 위치한 어느 한 조선옷점을 찾아 오래전부터 안면이 있는 책임자 박혜영을 만났습니다. 그는 반색을 하면서 자기는 석달전에 로씨야의 싸할린에 다녀왔다는것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곳 동포들은 우리가 가지고간 조선옷들을 보고 아름다운 수까지 놓으니 옷의 품위가 더욱 높아졌다고 하면서 이름난 조선의 수예품들도 전시하게 될 전시관을 꾸리는 사업에 저의 힘도 합쳐달라고 부탁하는것이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예로부터 슬기롭고 아름다운 조선녀성들의 생활속에 깊이 뿌리박고 민족풍습으로 발전하여온 수예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호 《민족의 향기》란에 조선수예를 소개하기 위해 아름다운 보통강기슭에 자리잡고있는 평양수예연구소를 찾아 연구사 윤명순과 자리를 같이하였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예라는 말은 본래 손으로 하는 재주라는 뜻으로서 수공예 및 공예를 의미하였으나 오늘에 와서는 주로 천과 실, 바늘을 가지고 하는 공예를 가리키고있습니다. 조선수예는 비단의 력사와 함께 발전하여왔다고 말할수 있는데 그것은 비단천과 비단실이 수를 놓기도 편리하고 장식적효과도 높기때문입니다. 옛 고조선의 수도였던 평양지방에서 최초의 수예유물이 나온것으로 보아 조선수예가 고조선을 중심으로 시작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조선수예는 삼국시기에 벌써 다른 나라들에까지 명성을 떨쳤는데 고구려의 귀족들은 평상시에도 수를 놓은 비단옷을 입었고 신라에서는 수놓은 부채를 무용수들의 소도구로 리용하였다고 합니다.

고려시기에는 국내산업과 대외무역이 전례없이 활발하여짐에 따라 수예의 조형적, 예술적 형상력이 매우 높은 경지에 이르렀으며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궁중의 궁녀들에 의한 궁수와 민간의 녀성들에 의한 민수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발전하였습니다. …》

수예에 대한 그의 《강의》는 시간이 흐를수록 흥미진진하였습니다.

저는 그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손수 《무궁화꽃수건》을 비롯한 수예품들을 창작한데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명순은 《녀사께서 창작하신 수예작품들은 오늘 주체수예의 력사적뿌리로, 민족수예를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초석으로 되고있습니다. 녀사께서는 해방[주체34(1945)년 8월 15일] 후 주체36(1947)년 5월 중앙수예제작소를 설립하도록 하여주심으로써 봉건적인 울타리안에서 맴돌며 이어져오던 조선녀성들의 소극적인 수예활동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확대발전시켜주시였습니다.》라며 수예의 기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조선수예는 섬세한 예술적기교를 요구하는 고상한 예술인 동시에 원화에 기초하여 형상과 다양한 기법이 창조되는 민족적특성이 강한 예술일뿐아니라 수놓이수단에 따라 손수와 기계수로 나눌수 있고 사명에 따라 실용수예와 감상수예로 나누어지며 장단수, 평수, 감침수, 되풀이수, 솔잎수, 씨알수, 십자수 등 20여가지의 전통적인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느라니 저의 눈앞에는 옷뿐만아니라 이불, 베개와 같은 침구류들에도 수를 놓아 생활을 문화적으로 가꾸어가는 조선녀성들과 세상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수많은 수예작품들이 방불하게 안겨왔습니다.

지금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에서는 조선수예를 세계비물질문화유산에 등록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선수예의 유구한 력사를 거슬러보니 세상에 찬란히 빛을 뿌리는 우수한 민족풍습을 대를 이어 지키고 발전시켜나갈 생각으로 저의 가슴은 더욱 뜨거워만졌습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연옥

6.15통일시대는 다시 펼쳐져야 한다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발표로 온 민족이 통일에 대한 환희와 격정으로 마음을 끓이던 때가 엊그제같은데 어느덧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그 나날 온 겨레는 6.15통일시대가 얼마나 좋았고 우리 민족끼리리념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것을 뼈저리게 절감하였으며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오기도 하였다.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열어나가야 할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 이것은 6.15공동선언과 거기에 담겨져있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주체89(2000)년 6월 평양에서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북남수뇌상봉이 마련되고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되였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간다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특기할 사변이였다.

6.15통일시대는 대결의 장막이 짙게 드리웠던 삼천리강토에 자주와 단합의 큰 자욱을 남기였으며 겨레의 심장마다에 꺼질줄 모르는 통일애국의 불씨를 심어주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통일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옹력은 6.15통일시대의 개척과 전진을 힘있게 추동한 원동력이고 활력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타는 애국일념과 무한대한 헌신으로 열어주신 6.15통일시대는 장장 반세기이상 얼어붙었던 북과 남사이에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력사를 펼쳐놓았으며 그 나날에 우리 민족끼리는 유일무이한 애국리념으로, 시대정신으로 겨레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잡게 되였다.

6.15통일시대의 성과들은 오늘도 해내외의 온 겨레에게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설 때 북남관계와 통일문제에서 해결하지 못할것이 없으며 우리 민족은 얼마든지 대결의 장벽을 허물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철의 진리로 새겨주고있다.

그러나 6.15통일시대와 더불어 활력있게 전진하던 조국통일운동은 남조선반통일세력의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엄중한 도전에 부딪쳤다. 자주통일의 대강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한 남조선반통일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하지만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는 격정으로 가득찼던 우리 민족끼리의 시대가 오늘도 깊이 간직되여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짓부시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6.15통일시대를 다시 안아올 희망과 신심에 넘쳐있다.

6.15공동선언을 지키고 빛내이면 평화와 통일, 민족번영의 길이 열리지만 그것을 잃으면 민족수난의 력사를 영영 되돌

려세울수 없다는것이 오늘 온 겨레가 절감하게 되는 력사의 교훈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공화국의 립장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

온 겨레는 북남공동선언들을 말살하려는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말고 단호히 짓부셔버리며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련대련합하고 단결하며 전민족적범위에서 통일운동을 활성화해나가야 한다. 사상과 제도, 지역과 리념,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활발히 접촉하고 래왕하며 북남당국을 포함하여 각 정당, 단체들과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실현하여야 한다.

민족의 근본리익을 중시하고 북남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기꺼이 손잡고나아갈것이라는것은 공화국의 일관한 립장이다.

온 겨레는 조국통일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민족의 힘을 모아 6. 15통일시대를 다시 펼쳐놓아야 할것이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리진옥

핵전쟁광기로 얻는것이 무엇인가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적움직임이 보다 본격화되고있다.

그것은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는것과 함께 침략적인 핵전쟁연습을 벌려놓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미국은 《F-22》스텔스전투기 12대를 일본에 전개한데 이어 노스 캐롤라이나주에 있던 미해병대 1개 대대를 오끼나와에 배치하였다. 그런가 하면 미국본토에 있는 《F-16》전투기 12대를 남조선의 오산미공군기지에 전개하였다.

그에 이어 지난 3월 미군은 남조선괴뢰군과 함께 조선반도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또다시 벌려놓았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에는 미국본토와 해외로부터 증원되는 미군무력과 수십만의 괴뢰군병력, 여러 추종국가병력을 포함한 방대한 무력과 미핵항공모함전단, 핵잠수함, 상륙함들, 《F-22》, 《F-35B》스텔스전투폭격기편대들이 동원되였다. 특히 미공군의 3대핵심전략무기로 손꼽히는 《B-52》, 《B-1B》, 《B-2》핵전략폭격기편대들을 비롯한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이 동원되였다.

이것은 력사상 최대규모라고 알려졌던 지난해의 합동군사연습을 훨씬 릉가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미국은 핵전쟁연습을 진행하기 앞서 공화국의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북극성-2》형시험발사에 의한 《위협증대》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과 《싸드》배비가 절실하다는 식으로 저들의 침략무력증강과 핵전쟁책동을 정당화, 합법화해나섰다.

옹근 하나의 핵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무력이 동원되는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를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현실은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해 얼마나 모지름을 쓰고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지금 미국은 저들의 무력증강과 핵전쟁연습책동을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 《방어력유지》를 위한것이라고 떠들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저들의 침략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허울좋은 간판에 불과하다.

원래 다른 나라들을 도발자로 몰아붙이고 침략전쟁을 일으키는것은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미국은 어떻게 해서나 공화국에 도발자의 감투를 뒤집어씌우고 저들은 마치도 평화와 방어를 위해 노력하는것처럼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려고 획책하고있다.

미국이 입버릇처럼 외워대고있는 공화국의 《핵 및 미싸일위협》이라는것은 핵선제타격수단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임의의 시각에 공화국과 주변나라들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미국이 현재까지도 수많은 미군무력을 남조선에 계속 주둔시켜놓고 핵전쟁자산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이고있는것은 조선반도에서 또 한차례의 침략전쟁, 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있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만일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쉽사리 지역밖의 넓은 범위에로 확대되게 된다.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이고 핵무기와 핵시설들이 밀집되여있어 핵화약고나 다름없는 남조선에서 위험천만한 불장난질을 시도하려는 미국이야말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장본인이다.

전쟁연습책동에 광분하는 미제침략군

하다면 이러한 무분별한 핵전쟁광기로 미국이 얻을것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공화국의 핵무력의 질량적인 강화밖에 없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달라지지 않는 한 그리고 공화국을 노린 핵전쟁연습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공화국은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계속 강화해나갈것이다. 그로 하여 미국의 처지는 더 위태로워질것이다.

힘의 대결을 반대하며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려는것은 공화국의 일관한 립장이다.

현 미행정부는 실패한 오바마정권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심사숙고하여야 하며 전략적선택을 바로 하여야 한다. 이것은 미국을 위해서도 유익한것이다.

본사기자 전룡진

상식

관찰사(감사)

관찰사는 조선봉건왕조시기 각 도의 장관을 말한다. 감사, 방백, 도백, 도신 등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고려말, 조선봉건왕조초에는 도관찰출척사 또는 도관찰사라고 하다가 1466년에 관찰사로 고쳐졌다.

관찰사는 처음에는 지방에 상주하지 않고 관할지역안을 수시로 돌아다녔다.

따라서 그가 머물러있는 곳을 순영 또는 해영이라고 하였다. 관찰사가 지방에 상주하기 시작한것은 조선봉건왕조성립후 수십년이 지난 뒤였는데 관찰사가 지방에 고정적인 관청을 두게 되면서 이곳을 관찰사영 또는 감영이라고 부르게 되였다.

관찰사(종2품)는 해당 도의 지방장관으로서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을 모두 틀어쥐고 관할지역을 통치하였다. 그는 자기 도안의 부윤(종2품), 대도호부사(정3품), 목사(정3품), 도호부사(종3품), 군수(종4품), 현령(종5품), 현감(종6품) 등 자기밑의 지방장관들을 지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있었다.

관찰사의 밑에는 그의 사업을 도와주는 도사(종5품), 판관(종5품), 중군, 검률(종9품), 심약(종9품) 등 관리들이 있었다.

관찰사의 임기는 처음에 1년이였으나 후에 2년으로 되였다.

관찰사는 해당 도의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벼슬자리가운데서 하나를 겸하게 되여있었으므로 그 권한이 컸다.

* * *

조선속담 (수월함)

- 가루 가지고 떡 못 만들랴

누구나 다 할수 있는 일을 가지고 잘했다고 여러말할 때 비겨 이르는 말.

- 누에가 진 뽑아내듯

누에가 실을 뽑아내듯이 이야기를 쉽게 이어나감을 비겨 이르는 말.

- 누워서 떡먹기

하기가 매우 쉬움을 이르는 말.

- 더운 국에 국수사리 풀어지듯

더운 국에 국수사리가 쉽게 풀어지는것처럼 무슨 일이 쉽게 되여감을 비겨 이르는 말.

- 무른 메주 밟듯

함부로 막 짓밟는다는 뜻으로 일을 쉽게 척척 해나가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 무른 땅에 나무박고 재고리에 말뚝치기

① 매우 하기 쉬운 일이라는 뜻.

② 만만한 대상은 다루기 쉽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참고: 무른 땅에 말뚝박기

- 묵은 낙지 꿰듯

일이 아주 쉬움을 비겨 이르는 말.

- 식은 죽 먹기

일이 매우 헐하고 쉬움을 비겨 이르는 말.

참고: 식은 밥 먹기

* * *

조선민족멸살을 노린 살륙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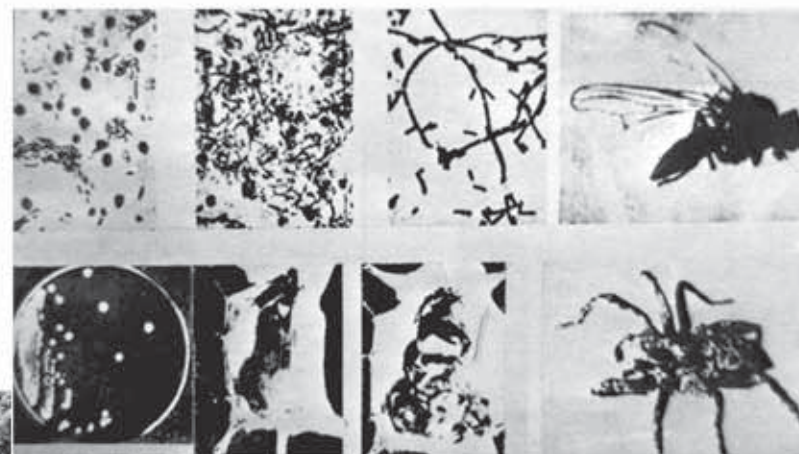
미제가 조선전쟁시기 감행한 조선인살륙만행은 세계전쟁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야만적이고 악독한 반인륜적범죄행위였다.

당시 조선전쟁(1950. 6. 25-1953. 7. 27.)을 도발한 미제는 이 침략전쟁을 단순한 침략전쟁이 아니라 조선민족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기 위한 민족멸살전쟁으로 간주하였다. 하기에 조선전쟁을 일으킨 첫시기에 미제침략군 8군사령관이였던 워커는 자기 고용병들에게 《…설사 그대들앞에 있는것이 어린이나 로인이라 할지라도 그대들의 손이 떨려서는 안된다. 죽이라!》고 명령하였는가 하면 맥아더는 《조선사람들을 짐승과 같이 생각하라. 짐승을 잡듯이 무자비하게 죽여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로골적으로 조선인살륙전에로 졸개들을 내몰았다.

그렇지 않아도 중세기적인 인간증오사상과 반동적인종론으로 길들어져있던 미제침략자들인데다가 또 여기에 상전들의 훈령까지 받았으니 그들의 살인행위가 어느 정도였겠는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것이다. 실지로 미제침략자들의 발길이 가닿는 모든 곳에서는 무고한 조선사람들의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강물이 되여 흘렀다. 특히 공화국북반부지역에 대한 일시적인 강점시기 황해도(당시) 신천군에서만도 단 50여일동안에 군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5 383명의 무고한 인민들이 미제침략자들에 의해 가장 잔인하고 야만적으로 학살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어머니와 어린이들을 따로 갈라놓고 휘발유를 뿌려 집단적으로 불태워죽이였는가 하면 무고한 인민들을 쏘아죽이고 때려죽이는것도 성차지 않아 작두로 목을 자르고 두개골에 못을 박아 죽이였다. 뿐만아니라 눈알을 뽑아내고 가죽을 벗기고 처녀들과 부녀자들을 릉욕하고는 젖가슴을 칼로 도려내여 죽이는것과 같은 상상을 초월하는 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미제침략자들은 신천군에서만이 아니라 안악과 은률, 남포와 개천등 일시적으로 강점한 공화국북반부 전지역에서 조선사람사냥에 그 악명을 남김없이 떨쳤다. 하기에 당시 미제침략자들의 만행을 현지에서 조사한 국제민주녀성련맹조사단은 《미국이 림시로 점령하였던 지역들에서 감행한 대중적학살과 고문들은 히틀러나치스들이 림시로 강점하였던 유럽에서 감행한 만행보다 더 악랄하다.》고 폭로하였다.

지난 조선전쟁 3년기간에 미제침략자들에 의해 공화국북반부에서만도 123만여명의 평화적주민들이 무참히 학살되였다.

미제침략자들의 살륙만행은 남조선지역에서도 야만적으로 감행되였다. 미제야수들은 군사작전지역과는 관계없는 주민부락을 닥치는대로 공격하여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였는가 하면 의도적으로 주민들을 모이게 해놓고 비행기를 불러 폭격과 기관총사격을 가하여 무리로 살륙하였다. 인천상륙 첫 하루동안에만도 1 300여명을, 서울교외에서 단 하루동안에 녀인들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800여명을 학살한것을 비롯하여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 전지역에서 수많은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살륙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전쟁기간 120만여명의 무고한 남조선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실지 미제는 전쟁전기간 원자탄공갈을 비롯하여 조선민족을 멸살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평양에만도 0.5t, 1t짜리 폭탄을 비롯한 42만 8 000여개의 폭탄을 투하하였는데 그것은 당시 평양시민 한명당 1개이상의 폭탄을 퍼부은것으로 된다. 미제는 지어 세균무기와 화학무기까지도 거리낌없이 사용하는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미제의 무분별한 생화학무기사용으로 수많은 인민들이 무참히 목숨을 잃었거나 불구가 되였으며 생태환경이 엄중히 파괴되였다.

후날 미국의 존슨집권시기 사법장관을 한 랜지 클라크는 6. 25전쟁의 본질이 미국의 조선민족말살정책에 있었다고 하면서 《우월한 백인병사들이 렬등한 유색인종전체를 작전전투대상으로 설정하고 남과 북, 전방과 후방,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 살륙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3천만의 조선인구가운데서 10%가 넘는 민간인이 몰살당한 전쟁을 국제사회가 잊어버리고있다는 사실자체가 비극》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민족은 미제가 저지른 조선민족멸살만행을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며 반드시 천백배로 복수할것이다.

권정남

미제가 뿌린 각종 세균들과 곤충들

세균전만행에 의해 희생된 주민들

폭사한 평양시주민들의 시체

폐허로 된 도시

과거죄악, 돈 몇푼으로 덮어버리려는 일본

일본이 자기의 더러운 목적을 달성해보려고 너절하고 유치하게 놀아대고있다.

얼마전에도 일본내각관방장관 스가라는자는 미국CNN방송과의 회견에서 성노예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정부가 발견했던 자료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련행을 직접 보여주는듯 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뻔뻔스럽게 시치미를 뗐다. 그리고 일본은 남조선괴뢰패당과 작당하여 그 무슨 합의라는것을 만들어내고 대신 몇푼의 돈을 던져주는것으로 저들이 저지른 특대형반인륜범죄를 무마시켜보려고 하였다. 하지만 남조선인민들의 거세찬 투쟁으로 남조선에 설치된 일본군성노예소녀상철거문제가 저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자 일본은 자기들이 돈을 지출한데 따라 남조선측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느니, 이것은 정권이 바뀌여도 실행해야 하는 국가신용의 문제라느니 하면서 철면피하게 놀아대였으며 너절한 몇푼의 돈 10억￥을 사기당한것 같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하였다.

돈이면 다 되는줄로 아는 일본이다. 하기에 얼마전에도 일본은 국제형사재판소에 푼돈값이나 될 《평화와 정의의 종》이라는것을 기증하는 광대놀음까지 벌리였다. 문제는 그 몇푼의 돈으로 과거죄악을 덮어버리고 저들을 《평화의 사도》로 내세워보려는 일본특유의 간특한 술책, 정치간상배로서의 도덕적저렬성을 다시금 만천하에 드러낸것이다.

언제인가는 저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자료를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명단에 올린다고 하여 앙탈을 부리며 돈줄을 자르겠다고 치졸하게 놀아대였던 일본이다.

알려진데 의하면 일본이 자기의 성노예범죄를 무마시키자고 남조선에 던져준 그 10억￥이라는 돈이 경마용말값도 안되는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왜 일본이 저들의 과거범죄를 돈 몇푼으로 가리우려고 그토록 안달복달하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범죄자의 심리에서부터 출발한것이다. 죄를 숨기는 범죄자는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법이다.

세계에는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나라들이 적지 않지만 일본처럼 이렇게 유치하게 놀아대는 나라는 없다. 일본은 언제 한번 성근하게 과거범죄를 인정해본적이 없는 나라이다. 모든것을 몇푼 안되는 돈으로 어물쩍해서 덮어버리려 하다가 사람들의 조소와 경멸을 받았다.

그렇듯 일본이 과거범죄를 미화하거나 부정하고있다.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에 사로잡혀 재침의 칼을 벼리고 있다.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에 장애로 되는 법적, 제도적장치들을 거의다 제거해버리고 국민들에 대한 군국주의사상고취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무력보유와 교전권을 행사할수 없도록 규제한 현행헌법을 개악하려고 하고있으며 무력의 현대화를 위해 막대한 돈을 탕진하고 정계와 군부, 군수업체가 한덩어리가 되여 군사대국화에로 미친듯이 내달리고있는데서 그 실체가 두드러지고있다.

사실들은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야망에 들뜬 일본의 광증이 위험계선을 넘어섰다는것을 보여주고있으며 일본의 재침은 각일각 현실로 되고있음을 시사해주고있다.

하지만 일본은 오산하고있다.

력사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정복에 나섰던자들의 말로가 어떠하였는가를 심각한 교훈으로 새겨주고있다. 과거 일본도 자기를 과신하며 침략과 전쟁을 일삼다가 종당에는 망하고말았다.

유치하게 아무데서나 돈주머니를 휘둘러대는자들이 명심할것이 있다.

일본의 산업발전의 기초는 지난날 조선인민과 아시아나라 인민들의 피와 땀, 재부로 이루어졌다는것이다. 부언하건대 조선인민에게 끼친 인적, 물질문화적 및 정신도덕적피해는 이루 다 말할수 없다.

일본은 과거 저들이 저지른 특대형반인륜적범죄를 돈푼으로 덮어버리고 그 막뒤에서 해외침략의 더러운 꿈을 꾸는 어리석은 망동을 걷어치워야 한다.

그것은 제 목에 올가미를 걸고 스스로 조이는 자멸행위나 같은것이다.

본사기자 강경수

인민의 힘은 당해낼수 없다

지난 기간 남조선인민들은 외세의 지배와 강점을 끝장내고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새 정치, 새 생활을 안아오기 위해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다.

남조선인민들의 반미반파쑈투쟁사에는 지금으로부터 30년전 온 남녘땅을 휩쓴 6월인민항쟁도 새겨져있다.

《유신》독재의 종말이후 움트던 민주화의 싹을 총칼로 짓밟고 쿠데타로 권력을 강탈한 전두환일당은 외세를 등에 업고 군부독재통치로 남조선사회를 인간생지옥으로 전락시켰다. 이러한 속에 전두환역도가 군부독재《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4.13특별조치》를 발표하고 친미군사파쑈분자인 로태우를 《대통령》후보로 내세운것은 인민들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냈다.

1987년 6월 10일 마침내 대중적항거의 불길은 타올랐다. 투쟁은 삽시에 서울과 부산, 대구와 광주, 목포와 제주 등을 포함한 남조선의 전지역을 휩쓸었다.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500여만명의 각계층 군중은 《호헌철페》, 《직선제개헌》, 《독재타도》, 《미제축출》, 《민족통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격렬한 투쟁을 벌리였다. 인민들의 대중적진출에 당황한 군사파쑈일당이 《갑호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시위진압에 10여만명의 경찰무력을 투입하며 무차별적인 탄압소동에 광분하였지만 항쟁용사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인민들의 완강한 투지를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수 없게 되자 전두환일당은 하는수없이 《직선제개헌》과 《구속자석방》 등을 약속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은 독재통치를 반대해나선 인민들의 단결된 투쟁과 폭압에 굴할줄 모르는 그들의 과감한 항거정신이 안아온 결실이였다.

남조선에서 6월인민항쟁이 있은 때로부터 30년세월이 흘렀지만 항쟁용사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기개는 오늘도 살아있다.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의 박근혜퇴진투쟁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박근혜역도의 반역통치로 숨이 막히고 살길이 막혀 폭발의 분화구를 찾던 남녘의 민심은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이 터진후 역적을 징벌하기 위한 초불용암으로 터져올랐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독재광이며 인간추물인 박근혜역도를 매장시키기 위한 전민항쟁에 떨쳐나섰다.

1 5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결성되고 남녀로소와 지역의 구별이 따로 없는 전사회적이며 전지역적인 투쟁이 전개되였다. 이 투쟁에는 로동자, 농민, 각계 사회단체성원들과 시민들, 야당의원들은 물론 애기어머니, 로인들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이 참가하였다. 차디찬 바다물속에서 죽어간 자식들의 원한까지 합쳐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이 투쟁의 앞장에 섰다. 남조선로동자들은 총파업투쟁으로 화답해나섰고

반박근혜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

농민들은 뜨락또르를 몰고 서울로 돌진하였다. 지어 나어린 초등학교학생들과 중, 고등학교학생들까지 민주주의를 무참히 유린한 역도를 하야시키자고 웨치며 항거의 주먹을 높이 쳐들었다.

박근혜탄핵안이 괴뢰국회에서 통과된 후에도 남조선인민들은 탄핵안이 가결되였다고 하여 투쟁이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다고 웨치면서 초불투쟁을 계속 이어나갔다.

이에 질겁한 역도는 민심을 기만우롱하며 보수세력을 내세워 위기를 수습해보려고 책동하였지만 남조선인민들의 의지는 결코 막을수도 꺾을수도 없었다. 수만명으로 시작된 남조선 각계의 초불투쟁은 그 참가자수가 지난 3월초까지 연 1 500여만명으로 확대되였다. 초불의 빛과 노호한 민심의 열기에 의해 밤도 없고 추위도 모르는 투쟁의 거리들에서는 《박근혜를 구속하라》, 《헌법재판소는 탄핵하라》 등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러한 속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였다. 그후 박근혜는 탄핵된지 29일만에 서울구치소로 압송되여 죄수복을 입고 독감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였다. 이것은 동족대결과 사대매국, 파쑈독재와 반인민적악정으로 민족을 등지고 민심을 거역해온 죄인에게 차례진 응당한 결과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의 투쟁을 통하여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단합된 인민의 힘은 그 누구도 당해낼수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체득하였다.

본사기자

박근혜의 가긍한 처지를 보여주는
남조선출판보도물에 실린 만화

유모아

《발전이 정말 빠르구나!》

아들: 어머니, 난 이번 시험에서 5등을 했어요. 빨리 닭알 삶아주세요.

어머니: 기특하구나. 발전이 정말 빠르구나! 어머니가 오늘 닭알 두알을 삶아주겠다.

아들: 고마워요, 어머니.

어머니: 그래 이번 시험에 모두 몇이나 응시했니?

아들: 물론 다섯사람이지요뭐!

*　　*　　*

과학기술전당

조선의 관광

평양의 대동강 쑥섬에는 과학기술전당이 자리잡고있습니다.

과학의 세계를 상징하는 거대한 원자구조모양으로 형상된 과학기술전당은 연 건축면적이 10만 6 600여㎡입니다.

전당은 크게 종합적인 전자도서관과 전시장구역으로 나뉘여져있습니다. 전시장구역은 응용과학기술관, 지진체험실, 가상과학실험실을 비롯한 부문별실내과학기술전시장과 미래의 에네르기구역, 과학유희구역 등으로 이루어진 야외과학기술전시장으로 되여있습니다.

전당에는 또한 찾아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할수 있게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는 500명능력의 숙소도 있습니다.

조국에서 이룩된 과학기술성과들과 세계선진과학기술자료들이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축되여있는 종합적인 전자도서관, 다기능화된 현대과학기술보급기지, 정보교류의 거점인 과학기술전당으로는 조국인민들뿐아니라 해외동포들, 외국인들이 수많이 찾아오고있습니다.

무두봉의 초여름　　　본사기자 최원철

저멀리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무두봉에 여름이 왔다.

겨우내 잠들었던 이깔나무마다 파아란 새옷을 떨쳐입고 그밑에 피여난 만병초며 오이풀, 매발톱꽃 등 고산지대의 풍치는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백두산의 아름다운 여름정서를 한껏 안겨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782142
http://www.naenara.com.kp(조문, 로문)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